

3-28-2013

지역 교회에서의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대전 성남 교회를 중심으로

Jaekil Yu 유재길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a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유재길, "지역 교회에서의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대전 성남 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3.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STRATEGY FOR REVITALIZING YOUNG ADULT MINISTRY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AEJEON SUNGNAM CHURCH

written by

JAEKIL YU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Seungkeun John Choi


Ah Young Kim


Jin Ki Hwang

March 28, 2013

**A STRATEGY FOR REVITALIZING YOUNG ADULT
MINISTRY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AEJEON SUNGNAM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AEKIL YU

MARCH 2013

지역 교회에서의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 대전 성남 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최 승 근 교수

유 재 길

2013년 3월

Abstract

A Strategy for Revitalizing Young Adult Ministry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aejeon Sungnam Church

Jaekil Yu

Doctor of Ministry

2013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One of the most serious challenges facing Korean churches now is that they are losing young people—and so also losing their future.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present an effective strategy for revitalizing Korean churches' young adult ministries.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defines “young adults” in various aspects and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inistry for young adults. It then describes four essential factors in ministry for young adults: professional ministers,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gospel, genuine Christian community, and good programs for training leaders.

Chapter 3 studies the main reasons young adults are leaving churches and why many churches have failed to minister to young adults. Chapter 4 introduces three churches that provide good examples of effective ministries for young adults. After describing the visions and pastoral philosophies of these churches, the chapter examines their young adult ministries.

Chapter 5 scrutinizes the Daejeon Sungnam Church's ministry for young adults. After surveying the area where the church is located, its history, pastoral philosophy,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church, this chapter presents the church's pastoral strategy for revitalizing its young adult ministry and discusses the

감사의 말씀

부족한 종에게 언제나 힘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과분하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한 감사를 드립니다. 철부지 같은 어린 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의 모든 삶의 흔적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흔적이셨습니다. 이제 온 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목회학 박사원 과정과 논문을 쓰는 과정 가운데 저의 목회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도록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핵심진리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침을 주신 김세윤 박사님과 부족한 종을 논문지도하시면서 속을 많이 태우시면서도, 참고 기다려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근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교역자로 있으면서도 저야 할 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쓰는 동안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최대한의 배려와 사랑으로 허락해주신 한성호 목사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없는 시행착오와 부족함으로 인하여 논문을 연기할까? 고민 할 때 힘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를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논문을 완성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태석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의 어려운 순간마다 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시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대전성남교회 정민량 목사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어려운 고비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무명의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기도의 눈물과 정성어린 사랑으로 함께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손을 잡아주며 격려와 신뢰로 함께해준 사랑하는 아내 이제는 훌륭한 사모가 되어서 최고의 힘이 되어 주는 주미자 사모, 같이 그 자리에서 아빠를 믿어주고 사랑해준 두 자녀 딸 소리, 아들 승찬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3년 3월 유재길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제 2 장 청년 사역의 중요성과 청년사역의 본질	5
제 1 절 청년 사역의 중요성	5
1. 교회의 청년 감소현상	6
2. 모임 기피현상	7
제 2 절 청년사역의 본질	8
1. 청년사역은 전문화 된, 준비된 사역자에 의하여 이루어짐	9
2.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10
3. 공동체성(소그룹)의 회복	11
4. 청년사역을 위한 많은 리더그룹을 세우는 사역	12
제 3 장 지역교회에서 청년 사역 활성화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	13
제 1 절 청년의 현재적 진단	13
1. 한국 청년들의 현황 분석	14
가. 스마트폰 시대	14
나. 취업전쟁	16
2. 교회 청년의 신앙생활에 대한 실증적 조사	17
가. 교회 출석	17
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	18
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	19
라. 개인 신앙생활	19
마. 선교단체 활동	20

제 2 절 청년사역 활성화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	22
1. 전문화 되지 못한 청년 사역자의 문제	23
2. 복음의 이해에 대한 부재	25
3. 공동체성(소그룹)의 약화	29
4. 청년사역 리더 발굴의 부재	31
제 4 장 청년사역이 활성화된 모델교회 연구	33
제 1 절 강남교회	33
1. 비전과 사역 철학	34
2. 사역의 실제와 분석	34
가. 양육과정	34
나. 사역	35
다. 새가족 등록 절차	35
3. 평가	36
가. 전문사역자가 있는가?	36
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선포가 있는가?	37
다. 소그룹사역이 진행되고 있는가?	37
라. 리더가 세워지고 있는가?	37
제 2 절 안양제일교회	38
1. 비전과 사역 철학	38
2. 사역의 실제와 분석	39
가. 8대 핵심전략	39
나. 예배가 살아야 청년이 산다.	39
다. 사역 시스템	41
3. 평가	41
가. 전문사역자가 있는가?	42
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선포가 있는가?	42
다. 소그룹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43

라. 리더가 세워지고 있는가?	43
제 3 절 동안교회	44
1. 비전과 사역 철학	44
2. 사역의 실제와 분석	45
가. 사역집중 사항	45
나. 캠퍼스 사역	45
3. 평가	46
가. 전문사역자가 있는가?	46
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선포가 있는가?	47
다. 소그룹사역이 진행되고 있는가?	47
라. 리더가 세워지고 있는가?	47
제 5 장 지역교회에서의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49
제 1 절 대전성남교회의 청년 사역을 위한 목회적 분석	49
1. 대전시의 지리적 상황과 현황	49
2. 대전성남교회 주변 선교를 위한 현황분석 및 지역적 특성	50
제 2 절 대전성남교회 목회 현황	51
1. 대전성남교회 소개	51
2. 대전성남교회 청년대학부 소개와 사역 비전	52
제 3 절 대전성남교회 청년대학부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53
1. 전문화된 청년 사역자를 세움	53
가. 청년 사역자를 위한 교회의 적극적 지원	53
나. 사역자의 자격을 갖춰라	54
다. 청년들과의 신뢰를 위해 노력하라	56
2. 복음선포와 이해	58
가. 복음으로 선포하라.	58
나. 복음기초 훈련	60
다. 개인 성경공부(personal bible study) 시간을 가지게 하라.	61

라. 예배에 승리하라.	63
마. 성경을 통독하라.	67
바. 복음을 봉사와 섬김으로 연결하라.	68
3. 공동체성(소그룹, 셀)을 활성화하라	69
가. 대전성남교회 청년부 셀 모임 기본 수칙	69
나. 대전 성남교회 셀 운영의 실제	75
4. 청년사역 리더를 세워라.	84
가. 제자(리더십)훈련	84
나. 리더를 세우기 위한 수련회	87
다. 예비리더를 발굴하라.	88
제 4 절 대전성남교회 청년 사역에 대한 평가	91
1. 긍정적인 평가	91
가. 복음의 이해도에 대한 조사	91
2. 개선점과 보완점	94
제 6 장 제언 및 결론	97
제 1 절 요약 및 정리	97
제 2 절 청년사역 활성화를 위한 제언	98
부록	101
참고 문헌	128
Vita	131

표 목 차

〈표 1〉 전체 교인 출석 대비 연령대별 분포도 (단위: 퍼센트)	6
〈표 2〉 전체 교인 출석 대비 청년부 모임 현황 (단위: 명)	7
〈표 3〉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전화통화 포함)	14
〈표 4〉 인터넷 불이용과 하루 행복지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5
〈표 5〉 취업 준비를 위한 하루 평균 공부 시간]	16
〈표 6〉 청년사역자의 사역기간과 맡은 부서	24
〈표 7〉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	30
〈표 8〉 훈련자 양육시스템	35
〈표 9〉 예배팀의 사역내용	40
〈표 10〉 예배팀장 교육시간	41
〈표 11〉 청년대학부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67
〈표 12〉 리더 수련회 일정표	88
〈표 13〉 잠재적 리더 발굴 전략	89
〈표 14〉 복음 이해도와 설교가 복음적인가?	92
〈표 15〉 현재 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	92
〈표 16〉 청년대학부 출석 변화 통계	93
〈표 17〉 나의 현재 행복지수	9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리더부재와 기독청년부재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위기는 교회의 위기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청년은 미래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세상의 유일한 대안인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산다. 교회가 침체 할 때마다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청년들이었다. 교회의 청년들은 교인들의 기쁨이며 자랑이고 소망이고 변화와 부흥의 상징이다. 세계 역사의 흐름과 기독교 개혁의 중심에도 젊은 기독 지성인들이 함께 하였다.

교회 외적으로는 1988년은 통일 운동이 활짝 만개한 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는 1988년 2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 교회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진보기독학생들이 정권유지 차원에서 주로 이용되던 통일 논의를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와의 새로운 연합 관계를 통하여 대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선도하였다.

교회 내적으로는 1980년대 민주대항쟁 이후 보수적 성향의 기독학생진영에서는 해외 선교를 중심으로 한 선교단체간의 연합운동, 캠퍼스 복음화라는 목표로 선교단체들과 교회와의 새로운 연합관계를 시작하였으며, 이 흐름은 1988년 선교한국을 열게 되었고, 올림픽을 통하여 선교운동이 가속화되고 성경공부와 외국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선교에 대한 관심에 각성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여파로 학원선교단체와 교회들이 ‘학원복음화’라는 하나의 이슈를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여 학원선교와 세계선교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한국교회 청년의 부흥과 성장은 세계복음화 뿐만 아니라,

사회변혁과 민족의 번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은 10-20년 뒤에 교회를 넘어 사회와 세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사도바울의 사역의 현장 주변에도 누가, 디모데, 마가, 디도 같은 젊은 믿음의 청년들이 함께했다. 요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청년들의 대가 끊기는 현상 때문이다. 바로 가까운 미래의 소망은 청년들이다. 한국교회는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과 미래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부흥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를 읽어야 한다.

교회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 은 앞으로의 미래교회는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교회를 EPIC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경험(experiential), 참여(participatory), 이미지(image-driven), 관계 (connected)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¹⁾ 이런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면 청년사역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하겠다.

최근의 한국교회의 청년 사역은 막연한 위기가 아니라 쇠퇴내지는 침체로 진단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09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기윤실)’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호전된 것에 위안을 삼아보지만, 민생에 와 닿지 않는 경제지표처럼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끝난 것인가? 독일, 영미의 복음주의 학생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한국의 복음주의 학생운동도 그 수명을 다했으며, 누군가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할 일은 주인대신 상처우고,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며 눈물 흘리는 일이 전부일까? 만일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라는 맘몬에 포로가 된 이 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키워내는 사명을 망각하고 기업이 되어버린 우리의 터전, 교회청년들과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잘린 허리로 고통당하는 반도와 백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이 아닌 성장에 사로잡힌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주님의 명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위기는 대응 여부에 따라 그야말로 기회가 된다. 또 충분히 그렇게 될 것으로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며 멋진 역전승을 그리며 청년 사역의 본연에 집중해야 한다.

1) Sweet Leonard,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옮김 (도서출판 좋은 씨앗, 2002), 13.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표면적으로 아프간 피랍사태와 비정규직과 관련된 이랜드 사태, 일부 대형교회들의 목회자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처신들과 같은 사건에 기인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 오만하고 권위적이며 세속적 성공주의, 신앙과 삶이 유리된 교회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에 기인한 것이다. 안티기독교 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많은 이들이 소위 기독교가정에서 성장한 이들이란 점은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바탕에서 더욱 큰 위기를 청어람 아카데미 양희송대표는 교회를 떠나고 있는 주요 연령층이 10대 후반부터 30대 까지라고 말하고 있다. 김상권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10대~30대까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청년실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²⁾ 소위 말하는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고, 시대의 주인공들인 ‘2030 세대’를 말한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교회는 세울 리더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렇다면 ‘2030 세대’는 어디로 간 것일까? 말 그대로 그 세대는 교회에서 ‘잃어버린 세대’다.

그렇다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일까? 청년부 침체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로 설명 할 수 있다.³⁾

첫째로는 전문화되지 못한 청년 사역자의 문제를 들 수 있으며, 둘째는 복음이해에 대한 부재의 원인, 셋째는 공동체성(소그룹 모임)의 부재, 넷째는 청년사역 리더 발굴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청년 사역의 성공과 실패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다시 한 번 청년사역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사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자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청년 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전략과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한국교회의 청년사역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극복하여 계속해서 청년부가 활성화되기 위한 목회 방안들을 대전성남교회 청년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김상권, *청년실종 공동체성으로 공략하라* (부천: 크리스천리더, 2012), 9.

3) 고직한, 김동호 외. *청년대학부 TNT부흥* (서울: 규장, 2001), 6-7.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국내·외의 다양한 서적과 논문, 인터넷 등의 관련 자료와 본 연구자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개인적 방법들과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역들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서론으로서 한국교회 청년사역이 어떠한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진단하고 논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청년사역의 중요성과 청년사역의 본질을 논할 것이다.

3장은 한국교회의 청년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청년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장은 청년사역의 모델이 되고 있는 교회들을 몇 군데 선정하여 조사하고, 청년사역을 활성화하여 한국교회에 신선한 자극과 영향을 주고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좋은 모델을 삼고자 한다. 강남교회, 안양제일교회, 동안교회. 이 교회들은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잘 극복하면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다. 따라서 이 교회들의 청년 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청년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지역교회가 청년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대전성남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6장은 결론으로서 논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 청년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제 2 장

청년 사역의 중요성과 청년사역의 본질

본 장에서는 지역교회에서의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먼저 이 시대에 청년 사역이 왜 중요한가?를 논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사역의 본질을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청년 사역의 중요성

청년부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현실을 직시해보면 무엇보다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청년의 숫자, 청년사역자들의 탈진증세, 교육자료와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의 낙후, 그리고 적절한 대안의 부재라는 문제점들이 청년사역의 우울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⁴⁾ 그러한 상황들은 이제 교육부서나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교회 지도자들이라도 여기저기에서 필요를 느낄 정도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관심 거리가 아닐 수 없다. 미국 IVF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미 룡은 그의 책에서 “교회에는 18세부터, 35세 사이의 연령 집단이 최소한 25퍼센트를 차지 할 필요가 있다.”⁵⁾고 말하고 있다. 청년부를 교회에서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교회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부는 청년들의 생활을 알고 이해하고 이끌어주며 비전을 주는 목회자가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장시간에 걸쳐 사역해야 하는 특수성을 알아야 한

4)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 서울: 땅에 쓰신 글씨, 181.

5) Jimmy Long, *새로운 청년 사역이 온다*. 신현기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44.

다.6) 그렇다면 ‘청년 사역이 왜 중요한가?’를 본 절에서는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회의 청년 감소현상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대전지역 주변의 청년부 실태를 조사하였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지역 주변의 교회들 중에서 교인 출석 500~2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아래 조사 통계는 전체 교인 출석 대비 청년부의 현황이다.

조사한 교회들의 요청에 의하여 실명은 쓰지 않기로 하였다.

〈표 1〉 전체 교인 출석 대비 연령대별 분포도 (단위: 퍼센트)

구 분	10대	20대	30대	40~60대	60대 이상
G교회	13	13	20	26	28
J교회	12	12	19	28	29
O교회	14	10	24	29	23
D교회	10	11	17	30	32
K교회	12	11	15	31	31

앞에서 언급한 지미 룡이 그의 책에서 제시한 건강한 교회는 18세부터, 35세 사이의 연령 집단이 최소한 25퍼센트를 차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표 1〉의 조사결과를 보면 20~35세 연령 분포도가 약 16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회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청년 사역은 이제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긴급성을 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심각성을 가지고 젊은 세대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교회가 다음세대를 바라 볼 수 있는 것이다.

6) 김원기,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라”, *목회와 신학*, 1998, 4월호, 78.

2. 모임 기피현상

본 연구자가 청년 시절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교회가 생활 터전이 되었다. 교회 안에서 학습, 교제, 교육, 훈련, 교육, 미래준비, 비전 세우기가 모두 이루어졌다. 이러한 모든 체계는 우선은 모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이기를 싫어한다. 자기를 노출 시키는 것을 꺼려한다.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교회 청년들의 모임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하여 보고자 한다. <표 2>는 전체 교인의 출석 대비에 따른 청년부 모임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전체 교인 출석 대비 청년부 모임 현황 (단위: 명)

구 분	전교인 출석수	5년 전	현 재	전 망
G교회	1200	모임부재	100	유지
J교회	1200	170	80	비관
O교회	600	120	70	비관
D교회	500	100	30	비관
K교회	1000	150	100	유지

출석 교인수에 비하여 청년, 대학부가 모이는 숫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렇게 모이지 않는 원인에는 인터넷에 시간을 빼앗기고, 취업준비, 학비조달, 모임에 대한 매력 감소, 정보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임에 출석하므로 얻게 되는 유익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모이지 않아도 이러한 문제가 어느 곳에서나 거의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모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모임의 부재는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사역자들과 대화해 본 결과, 현재 소그룹 모임이나 기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또한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부흥이나 성장을 기대하기 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힘겨울 정도이며, 다행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청년사역의 방향을 유지 쪽에 방향을 설정한 것이 본 연구자가 조사한 교회들의 현실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젊은 청년들이 다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 들 수 있는 기반과 방법, 시스템을 만들고, 그들의

삶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성공과도 바꿀 수 없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청년사역인 것이다.

그래도 이러한 청년부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절망 중에 한 줄기 희망의 요소가 된다. 청년부의 중요성을 실현하려는 여러 교회와 대학생 선교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학원선교단체들이 힘을 모아 ‘학원복음화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성과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와 청년부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른다면 미래를 기대 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교회사역 뿐만 아니라, 청년사역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사역의 불리한 주변의 여건들을 담대히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한 몸부림을 시작해야 한다. 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청년사역의 위기감을 고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청년사역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알아야 청년사역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과 비전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청년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제 2 절 청년사역의 본질

청년목회 사역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청년사역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하여 이재철은 그의 책에서 “청년 시절은 반드시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이고, 청년의 때란 자기 가능성의 그릇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 절대적 시기이기 때문이다.”⁷⁾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언급은 청년의 때는 자기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터를 다지고, 미래교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사역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오늘은 내일과 직결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내일과 연결되는 까닭에, 그들을 ‘현존하는 미래’라고 부른다.⁸⁾ 불과 5~10년 안에 교회를 움직이는 자리에 서게 될 청년들 안에서, 준비된 체계적인 대안을 찾지 않는 교

7) 이재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서울: 흥성사 2009), 8.

8) Ibid., 9.

회에게 누가 희망을 걸겠는가? 이러한 교회의 현실적 진단을 통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청년목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청년사역의 본질을 다음 네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청년사역은 전문화 된, 준비된 사역자에 의하여 이루어짐

한 조직의 위대함은 리더의 위대함과 정비례한다. 조직이 리더보다 위대해 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거인 조직이 난쟁이 리더 밑에서 나오지 않는다.”⁹⁾ 고 헨리 블랙커비는 말하고 있다. 결국 준비되지 않거나, 전문화되지 못한 사역자의 사역은 리더십 부재로 나타나게 된다. 청년부 사역은 교회기관의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핵심이며,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서의 하나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사역자들을 홀대하거나, 교역자가 한 번 쯤 지나가는 코스로 알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만큼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없다. 흔히들 리더는 훈련되고 준비되어 지는 것이라고 한다. 가정에서 실패를 통하여,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개인적 고뇌와 고생을 통하여 만들어진다.¹⁰⁾ 청년부 사역의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 질때, 더 단단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장년들보다도 시대의 조류와 변화에 민감하여, 전문화되고, 잘 훈련되고, 경험이 많은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의 자리가 청년부 사역의 자리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청년사역의 실태는 그렇지 않다. 본 연구자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청년사역을 조사해 본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조사한 교회들마다 특징은 전문 사역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최소한 청년사역과 함께 3~4가지 사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구조 자체가 청년사역에 집중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조사한 지역이 지방이라고는 하지만, 근교에 대학캠퍼스도 있고, 나름대로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 하여 부흥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전문사역자는 예산이 많은, 청년이 많은 교회만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청년사역의 본질이 왜 사역자에게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드러난 리더십과 집중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스템의 문제이기

9) Henry T. Blackaby & Richard Blackaby, *영적 리더십*, 윤종석 옮김 (서울: 두란노서원 2003), 48.

10) Ibid., 60.

때문이다.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룹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어떤 시도이기 때문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는 관리자와 사뭇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¹¹⁾ 따라서 사역자의 잦은 교체는 청년사역에 집중 할 수 없고, 리더십의 한계에 도달 할 수 있다. 또한 부흥을 위한 필요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다. 청년사역이 체계적이지도 못하다. 사역에 집중 할 수 없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 수립이 되지 않은 사역에 무슨 효과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가?

2.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무엇인가? 미국 풀러신학 대학원의 신약학 교수인 김세윤은 예수가 전한 복음을 그의 책에서 두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선포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15; 마4:17).¹²⁾ 그렇다면 하나님나라가 가까이 도래한 현재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복음이다.¹³⁾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는 바로 우리(죄)를 위해서 죽은 메시아(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했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의 관계로 새창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되었다.¹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종말의 백성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이며, 하나님의 통치사역을 계속해서 대행하는 분이 그리스도이다.”¹⁵⁾라고 선포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다.

이러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다보니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본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11) 김성진,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길* (서울: 목회 컨설팅 연구소 2009), 10.

12)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서원 2012), 45.

13)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서원 2001), 151.

14) Ibid., 164.

15) Ibid., 188.

자녀가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복음의 경험이 없다. 예수라는 분이 나의 인생과 삶과 미래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모호하다. 그러다보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값을 다 지불하고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등을 주장하므로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속박하고,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유사복음에 몰들어 있다. 만일 인간이 스스로의 자원으로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고 영위 할 수 있다면 구원받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¹⁶⁾. 우리는 다시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청년들의 영성은 이러한 변질되지 않은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복음의 이해에 대한 부재는 성경공부의 부재로, 성경공부의 부재는 복음의 약화로 악순환 되어 나타나고 있다. 생명과 교훈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기독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 볼 때 본 연구자는 복음의 본질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청년사역의 중요한 본질이라 생각되어진다.

3. 공동체성(소그룹)의 회복

인류의 반항으로 깨어진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모으셔서 계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계획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¹⁷⁾ 수 년전만 해도 대학 캠퍼스의 선교단체들에는 많은 청년들의 모임과 기도모임 등의 활동의 에너지가 캠퍼스를 압도하고, 교회 내에서는 교회 활동의 활력소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청년들의 모임이 예전에 비하여 크게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각 교회들의 공통된 아우성이다.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의 고유 영역인 인정과 관계, 즉 공동체적 기반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¹⁸⁾

소그룹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이며, 청년사역의 본질이다. 본 연구자가 청년사역 모델 교회를 제시하면서 느낀 그 교회들의 부흥과 성장의 중요한 공통점은 소그룹사역이었다. 스마트 폰, 인터넷, 취업전쟁, 학자금 마련 등으로 개인적 삶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 시간이

16)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26.

17) Jimmy Long, *새로운 청년 사역이 온다*, 123.

18) 김상권. *청년실종 공동체성으로 공약하라*, 24.

없어서 못 나가고, 필요한 정보와 에너지를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등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의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빈 공간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 소그룹이다. 소그룹은 어디에서든,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든지,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은 것이 큰 장점이며, 매력이다. 적게는 2~3명, 많게는 8~9명 등, 소그룹사역은 시대가 변하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가는 어느 시대 속에서도 유용하고, 가능한 청년들을 모으고 양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4. 청년사역을 위한 많은 리더그룹을 세우는 사역

청년들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교회와 사회의 리더들이다. 청년들을 보면서 미래의 지도자인 모습을 꿈꾸며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은사 개발을 통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교육, 전도, 친교, 봉사에 있어서 참 예수의 제자로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미래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그들이 추구하는 모델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핵심은 '복음운동'이다. 그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청년사역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복음은 어느 한 분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사역을 포괄하는 핵심 기준이 복음인 것이다. 올바른 복음의 인식과 그 복음의 능력이 청년 사역과 청년들의 삶 전체에 녹아난다면 그것이 제자의 삶이며, 그러한 제자의 삶은 청년의 가치와 목적을 새롭게 할 것이며, 그들이 삶속에서 녹여내는 복음적인 삶은 가정과 캠퍼스와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청년 부흥의 기초이며 핵심을 이룰 것이다.

청년부의 회복은 그렇게 단순한 몇 가지 방법으로는 쉽지 않다고 한다. 가장 세련된 목회스타일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목회전략이 종합적으로 구사 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¹⁹⁾ 그 종합적 전략 중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핵심과 기초가 될 것이며, 중요한 뼈대가 될 것이다.

19) 박용진, *청년부 얼마든지 살아 날 수 있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5.

제 3 장

지역교회에서 청년 사역 활성화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

본 장에서는 청년들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과 신앙생활을 진단 및 이해하고, 청년사역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영적성장과 부흥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²⁰⁾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현재 상황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제 1 절 청년의 현재적 진단

청년대학생들 중 기독교인의 비율이 17.2 퍼센트로 조사되었다.²¹⁾ 5 퍼센트대 미만일 것이라고 걱정했던 그간의 숫자는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었다. 현장전문가들의 진단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난 이 통계숫자는 ‘가정종교’의 영향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아직은 그래도 부모가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번 조사에서 캠퍼스 사역환경과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여 교회와 선교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러한 방대한 조사연구를 개인이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2012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본 절에서 제시하는 많은 통계들은 학원복음화 협의회 측의 허락을 얻어 그 조사를 근거로 한다

20) D. Martyn Lloyd-Jones, *부흥의 장애물*, 정상윤 역(서울: 복 있는 사람, 2007), 43.

21) 학원 복음화 협의회, “2012년 한국 청년,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연구”, 18.

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자가 속한 교회 주변 교회들 중 그래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을 선정하여 필요한 설문을 한 자료를 토대로 청년 및 캠퍼스 사역환경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1. 한국 청년들의 현황 분석

가. 스마트폰 시대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무려 96.7퍼센트에 이르러 전체 국민 사용률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 162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중한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이다. <표 3> 는 대학생들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3>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전화통화 포함)²²⁾

사례수	1시간 이내	1-2 시간	2-3 시간	3-5 시간	5시간 이상	계	평균 (분)
	%	%	%	%	%	%	%
(965)	8.9	23.4	25.7	29.6	12.5	100.0	162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 3시간 가까이 됐으나 3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도 거의 절반 가까이(42.1%) 차지하였고, 10명 중 한 명은 5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학업과 과제물에 할애해야 할 시간을 제외한다면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시간이 최소 1,2시간을 넘어선다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청년들도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에 빠르게 접어들고 있고, 청년사역의 패러다임도 청년 문화와 생활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후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의 이용은 세계화를 앞당기고 있고,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다. <표 4> 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도 하루를

22) 학원복음화 협의회, “2012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연구”, 42.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음을 나타내는 설문 조사결과를 표로 담고 있다.

〈표 4〉 인터넷 불이용과 하루 행복지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사례수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약간 그러함	④매우 그러함	아니다 (①+②)	그렇다 (③+④)	계
	%	%	%	%	%	%	
(1000)	8.8	31.1	50.5	9.5	40.0	60.0	100.0

〈표 4〉의 결과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는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없다는 응답이 40퍼센트에 달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응답도 8.8퍼센트나 되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셈이다. 실제로 카페나 캠퍼스를 거닐 때 만나는 대학생들은 앞에 앉은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게임을 하는 모습을 적잖게 발견할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했던 인터넷 환경이 이제는 손바닥 안에서 도 가능하게 된 만큼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보다 편리해졌다. 필요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온갖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력은 여지 없이 활용된다. 만약 인터넷이 없다면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너무나 불편한 수고를 감행해야 할지도 모르는 현실 가운데, 대학생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오늘의 세대에서는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다. 반대로 이들은 지극히 영적(spiritual)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²³⁾ 그렇다고 이들이 종교적 단체에 몰려드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문제에 그 어느 세대보다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희망적이다.

한편으로 스마트폰 시대는 더욱 현장감 있는 사역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결국에는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인터넷 문화는 앞에서 이

23)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 97.

미 언급한 것처럼, 청년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청년 사역을 위하여 반드시 정복해야 할 영역이다.

나. 취업전쟁

우리는 ‘구직 잔혹사’가 행해지는 서글픈 대학가에서 대학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대학자체가 변질되었다. 대학시절에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던 인문학적 소양습득, 가치관 형성, 관계를 통한 인격과 사회성 계발, 인생 목표와 비전 수립 등의 과제가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하고 현실적인 취업이 가장 중요한 대학의 역할로 대체되는 형국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가의 변화와 변질은 전통적으로 ‘전도의 황금어장’과 ‘복음진지’로 여겨오던 인식도 허물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37.7퍼센트가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하루 평균 155분을 취업준비를 위해 할애한다고 대답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은 이미 오랫동안 대학가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고 본다. 취업을 위해 하루 평균 공부하는 시간을 보니 평균 3시간이상 한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관심이 이제는 진리에 대한 탐구나 자신의 인품과 덕양에 있는 것이 아닌 취업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취업 가능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지의 여부가 시대적 현상과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표 5>은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하루에 공부하는 평균 시간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5> 취업 준비를 위한 하루 평균 공부 시간²⁴⁾

사례수	1시간 이내	1-2 시간	2-3 시간	3-5 시간	5시간 이상	계	평균
	%	%	%	%	%	%	%
(377)	1.3	17.5	32.8	39.9	8.5	100.0	155

24) 학원복음화 협의회, “2012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연구”. 44.

선교단체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부담’을 꼽은 학생이 55.6퍼센트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물질적인 부담’이 21.3퍼센트였고, ‘교회와의 갈등’도 5.5퍼센트가 응답을 했다. 요즘은 대학생들도 시간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교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확률이 높다고 할 것이다.

대학생 사역은 결코 이 시대의 고민을 묵과한 채 넘어갈 수 없다. 현재 대학생들의 아픔이 곧 사역의 눈물이자 기도가 되어야 한다. 취업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내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생 사역은 그러한 시간이 맹목적인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고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 또한 대학생으로서 소중한 일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지한 권면과 도전이 필요한 때이다.

2. 교회 청년의 신앙생활에 대한 실증적 조사²⁵⁾

이 부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교회에 처음 나온 시기, 영접에 대한 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신앙생활 만족도, 개인 신앙생활, 선교단체 활동 등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이어진다.

가. 교회 출석

보통 대학생들은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할까? 이 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이전에 이미 65.1퍼센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중학교까지 합친다면 84.5퍼센트가 아직 생각이 생기기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한미준)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중학교까지의 나이에 최초 신앙을 시작한 사람의 비율은 50.5퍼센트였다. 이것이 약 14년 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 점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조사의 비율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역시 가정의 종교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 나이에 부모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현재에도 교회에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대학을 다니고부터 다닌 사람은 약 5.1퍼센트밖에

25) 학원복음화 협의회, "2012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신앙생활에 대한 조사연구",

안 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향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주목해서 볼 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청년부 참석하는 비율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34.4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초등학교시절이나 중학교시절인데 이들의 비율은 18퍼센트였다. 즉 약 2배가량 더 높은 것이다. 또 선교단체 활동에 대한 연결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라고 대답한 사람이 54.7퍼센트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즉 가정의 신앙교육이 이후의 신앙생활 역시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시 이것도 가정의 종교라는 틀에서 보아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교회를 얼마나 자주 나가고 있을까? 기독교 대학생들은 보통 1주일에 1회를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리고 2회 이상은 28.1퍼센트이다. 결국 교회 출석의 의미가 주일 예배 1회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역시 가족의례로서의 교회참석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교회 출석의 약화는 공동체성의 약화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청년들의 공동체성의 약화는 소속감, 일체감을 약화시켜²⁶⁾ 성장을 더디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

‘영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하면서도 그 의미에 대하여는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의하면, 63퍼센트가 영접했다고 대답을 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의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을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 이유는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교회에서 영접여부를 확인하는 기초과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양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진정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개인의 ‘영접’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갖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영접시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큰 의미가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런데 영접계기를 물으니 90퍼센트가 교회에서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 또 영접계

26) 김상권, 청년실종 공동체성으로 공약하라, 31.

기를 물어 보니 57.1퍼센트가 ‘정규 예배, 기도회’에서라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특별 집회(부흥회, 사경회, 수련회등)가 20.7퍼센트, 성경공부,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14.8퍼센트가 나왔다.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과거에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와 현재의 의미가 좀 달라진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인들이 종교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종교를 하나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이 그들의 삶에 종교를 덧입고 있다는 느낌이다.²⁷⁾ 혹시 영접이라는 것도 좀 그러한 의미로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물었다. 제일 많은 응답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로 51.4퍼센트이고, 이와 비슷한 비율의 대답은 51.3퍼센트가 대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이다. 그리고 곧 이어서는 ‘성경의 내용을 믿으므로’가 48.3퍼센트가 응답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61.0퍼센트,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믿어서가 56.0퍼센트로 높게 나왔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우리가 청년 사역과 부흥을 걱정하는 그 걱정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이 구원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접근 방식을 깊이 고민해야 하고, 사역의 방향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이다. 복음의 본질은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복음을 요약하면 나의 평안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이다.²⁸⁾ 복음을 비껴난 그 무엇도 신앙의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개인 신앙생활

일주일 간 성경을 읽은 시간에 대한 질문에, 읽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44.8퍼센트이다. 그런데 읽었다고 한 사람은 55.2퍼센트였다. 거기에 1시간 이상 읽은 사람도 34.6퍼센트나 되었다.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든다. 대학생 시절에 신앙을 그래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 것으

27) 조성돈, 정재영, 그들은 왜 카톨릭 교회로 갔을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9.

28)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20.

로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평균 1주일간 성경을 읽은 시간은 64분이다. 그런데 청년부 활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 72분과 49분이다. 그리고 선교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83분이고 안 하는 사람은 62분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읽는다는 사람이 45.3퍼센트나 되었다. 하지만 일정한 방법이나 정기적으로 읽는다는 사람도 많았다. ‘QT책을 통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32.1퍼센트로 높게 나왔다. 특히 선교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53.6퍼센트가 ‘QT책을 통해서’라고 응답을 했다. 즉 선교단체를 통해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룹 성경읽기를 통해서도 21.4퍼센트가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읽기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해서는 성경의 깊이를 알기가 어렵고 복음의 진리를 터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²⁹⁾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도 16.5퍼센트가 되었고, 주로 1시간 이내와 1-2시간 정도로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 즉 38.1퍼센트와 34.4퍼센트이다. 이들을 합치면 72.4퍼센트이다. 평균도 역시 59분이다. 1998년도 한미준 조사에 비슷한 문항이 있었는데 일반 교인들은 하루 평균 19분이었다. 이를 일주일로 하면 133분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기도 시간이 상당히 적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구호는 매우 중요하다.³⁰⁾ 왜냐하면 부흥이 어디서 오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방문이기 때문이다. 참된 헌신은 청년들의 진실한 태도에서 나온다. 그 진실한 헌신의 태도는 또한 진실한 기도에서 나온다.³¹⁾

마. 선교단체 활동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7.6퍼센트였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오히려 참여 한적 있지만 현재는 아니더라고 대답한 학생이 13.9퍼센트였다. 즉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생에 거의 두 배 정도의 숫자이다. 일단 참여된 학생들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험 없지만 참

29) 김세윤,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9), 13.

30) 전병욱, *부흥닷컴* (서울: 규장, 1999), 15.

31) E. M. Bounds, *기도의 능력* 유준목 옮김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2011), 155.

여 의사가 있는 학생이 그래도 29.6퍼센트에 이르렀다. 그러나 믿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경험 및 의향이 모두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48.9퍼센트에 이르렀다. 약 50퍼센트에 이르는 기독교학생이 참여의향 조차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교단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선교단체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단계라고 본다.

일주일 중 선교단체 모임 참석 횟수를 물었는데 평균 2.5회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대답은 1회로 26.3퍼센트였고, 그 다음이 3회로 23.8퍼센트로 나타났다.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회와 선교단체 중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40.2퍼센트가 주로 교회를, 39.2퍼센트가 주로 선교단체로 대답을 하여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이런 균형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다. 선교단체 활동에 관한 교회지도자의 반응을 물었다. 이에 이해하는 편(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0.6퍼센트였다. 과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요즘은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였다고 보여진다. 아무래도 선교단체들이 일반 교회에 친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선교단체 출신들이 성인이 되어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 내었다고 본다. 그러나 선교단체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부담을 꼽은 학생이 55.6퍼센트이다. 이외에는 물질적인 부담이 21.3퍼센트였고, 교회와의 갈등도 5.5퍼센트가 응답을 했다. 요즘은 대학생들도 시간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교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진다.

일반 기독교학생들에게 '지난 1년간 개인적으로 전도하여 교회나 선교단체로 인도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절반이 넘는 57.5퍼센트가 경험 자체가 없다고 대답을 했고, 22.5퍼센트는 전도는 했지만 인도는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20.6퍼센트만이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반해서 선교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경험이 있다고 39.6퍼센트이고, 전도는 했지만 인도는 못했다가 36.4퍼센트, 그리고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는 22.6퍼센트였다. 역시 선교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도에도 열심이 있었다. 전도는 어명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이라고 했다.³²⁾ 어명

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다.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지만, 청년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긍정적인 요소도 나름대로 발견 할 수가 있었다. 전에는 선교단체나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복음이 확장되었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가정종교’의 영향도 무시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노아가 삼손을 기르듯이, 한나가 사무엘을 기르듯이, 그리고 요게벳이 모세를 기르듯이 신앙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³³⁾ ‘가정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굴레를 벗어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교회들과 문화공간을 통하여 복음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성하여서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가정종교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현 상황의 유지 내지는 감소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볼프강 짐존은 그의 책에서 가정종교를 넘어서 ‘가정교회’의 구조는 배가가 가능한 구조라고 말하고 있다.³⁴⁾ 그러나 요즘 가정은 하숙집으로 변하여 집만 있지 정작 가정은 없다.³⁵⁾ 고 말하기도 한다. 가정종교 구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청년부흥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캠퍼스나 교회에서 청년사역과 부흥을 위해서 온갖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몸부림치는 사역자들에게는 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어느 한 두 가지의 단순한 원인은 아니며,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서 본 연구자는 다음 절에서 네 가지 원인을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청년사역 활성화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

청년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장애물은 과연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일까? 무엇보다 청년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본다. 청년사역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32) 김두식. 전도는 어떻게이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5.

33) 김형태. 신앙·교육·가정 (한남대학교 출판부 글누리 2009), 253.

34) Wolfgang Jimjon, 가정교회, 황진기 옮김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04), 176.

35) 김형태. 신앙·교육·가정, 215.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고, 청년사역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청년사역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문화 되지 못한 청년 사역자의 문제

하나님은 리더를 지명하신다.³⁶⁾ 라는 말은 하나님은 지도자를 찾으신다는 말과 같을 것이다. 누구를 가리켜 전문 지도자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학생 및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본인이 직접 학생 및 청년 시절에 경험해 보았고 학생 및 청년들을 위해 사역해 본 경험이 최소한 3년 정도는 되며 비교적 장기적으로 젊은이 사역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을 한국교회의 형편에 맞춰 볼 때 전문사역자로 볼 것이다. 청년전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청년 사역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청년사역자는 청년들의 신앙 뿐 아니라, 삶과 미래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안내하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청년들의 전반 적인 삶의 영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서로 신뢰하고 자신의 사람을 맡길 수 있는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 3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때부터 사역자의 영향력이 청년들에게 스며드는 것을 본 연구자의 많은 청년사역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지만 알아듣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에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 공생애 3년 되는 시점부터 예수님의 가르침과 의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다. 청년부가 성장하고 활성화된 교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일관된 요인은 전문성을 지닌 지도자의 영향력이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청년사역은 체질화된 사역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변 교회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퍼센트 이상의 교회들이 청년사역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청년사역이 교회 한 쪽으로 내버려져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심지어 어떤 사역자는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하면서도 4~5개의 사역을 병행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표 6> 은 청년사역자의 사역기간과 그들이 맡은 부서를 표로 만든 것이다. <표 6> 에 의하면 , 청년사역자라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럽고 무의미한 상황이다. 기껏해야 사역기간 3년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부서를 맡고 있어

36) Henry T. Blackaby & Richard Blackaby, *영적리더십*, 66.

서 청년사역에 집중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서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몇몇 교회들도 상황은 별반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표 6〉 청년사역자의 사역기간과 맡은 부서

교회 \ 사역기간	1년	2년	3년	5년 이상	맡은 부서
G교회	○				4
J교회	○				5
O교회			○		3
D교회		○			3
K교회		○			4

본 연구자가 탐방하여 청년부 사역 현황을 조사한 교회 중 무학교회나, 강남교회, 안양제일교회, 동안 교회 등은 청년부 사역이 나름대로 활성화 되었고 성장과 부흥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었다. 그 중 한가지 특징은 그러한 교회들마다 청년, 대학부에 전문사역자가 담당하고 있었고 청년, 대학부만을 전담하고 있었다. 반면 전문사역자가 사역하지 않는 교회의 청년사역은 많이 위축되고 현상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청년부를 지도하기 위해 적합한 전문 사역자가 나오지 않는 한 아무리 교회에서 청년부를 키우고자 노력한다 하여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이상과 꿈을 걸고 전문 지도자로 준비된 사역자가 등장할 경우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청년부 사역은 머지 않은 시간 내에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은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 전문 사역자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12개 학생선교단체의 전임 사역자의 수는 총 약1,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학원복음화 협의회는 추산하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젊은이 사역에 철저히 헌신된 자들이며 장기적으로 그 사역에 전념해 오고 있는 이른바 전문사역자들이다. 교회에서도 이렇듯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어야 청년, 대학부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청년부 사역자를 그 교회의 부교역자들 중에서 순환제식으로 순서에 따라 돌려

가며 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청년에 대한 미래를 포기하는 것보다 바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교회는 청년부 사역에 적합한 전임 사역자를 발 벗고 찾아야 한다. 가능하면 몇몇 앞서간 청년부에서 활동 경험이 충분히 있고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잘 훈련을 받았고 청년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 경우 그 사람이 교역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직접 청년부 지도자로 세울 수도 있으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 교역자의 책임 하에 두고 간사로 세워 사역을 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적합한 사역자가 나왔다면 최소한 3년 이상 같은 사역을 맡겨야 한다. 청년들의 영적 필요들이 잘 훈련된 지도자의 관심과 훈련에 의하여 가장 잘 충족 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⁷⁾

2. 복음의 이해에 대한 부재

현대 기독교의 고질적인 문제는 종교개혁의 왜곡된 유산으로 남겨진 믿음과 행위의 이원론일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위에 무관심한가 하면 행위를 강조하면서 믿음에 소홀한 경우가 그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과 행위의 긴밀한 내적관계를 알지 못한채 행위를 믿음을 가진 자의 윤리적 결단이나 아니면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의 보답적 반응정도로 이해함으로써 여전히 믿음과 행위의 이원론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인근 교회들의 청년부 사역자들의 설교를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복음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기준은 2장에서 청년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김세윤박사의 복음내용을 정리 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다시 말해, 곧 다가올 하나님나라의 선포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위 교회들의 청년사역자가 선포된 말씀이 복음적인지를 사역자별로 5개의 설교를 조사, 검토하였다.

조사한 교회들의 반 이상의 많은 교회들이 70퍼센트 아래에서 복음의 본질이 아닌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진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었다. 듣기 쉽고, 거북스럽지 않은,

37) 육한흠.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09), 29.

성공에 포커스가 맞춰진, 고지론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되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머리가 되어야 한다. 그 자체가 잘 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외면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 성공을 위해서 방법을 무시하게 된다. 성공한 사람이 믿음도 좋은 것처럼 비취지게 된다. 반대로 직장이 취업이 안되고, 직업이 변변하지 않고, 결혼이 평범하고, 일이 잘 안되면 믿음도 잘못된 것처럼 오해하는 풍조들이 이러한 연유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돈만 많이 벌어서 선교하면 다른 불의와 실수가 용납되고 믿음을 인정 받게 되는 이런 구조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바른 복음의 역사 또한 아니다. 그나마 복음에 기초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의 청년부가 나름대로 모임을 가지고 있었고, 소그룹, 성경공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김세윤교수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교육이 ‘길들임’ 형태의 교육으로 전락하도록 이끌어 온 결과이다. ‘길들임’이란 교회의 교육적 노력을 단지 교인을 모으고 교인들로 하여금 ‘제도적 교회에 충성하도록 교육하는’일에만 치중함을 의미한다.³⁹⁾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실체에 대하여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성경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내세우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믿음이란 매우 언약적 표현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의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빌려 확인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건 피의 서약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 이 할례의 성격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의 인간 편에서의 피의 서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며 본질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 육한흠 목사는 그의 책에서 “열심 낸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⁴⁰⁾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

38)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50.

39) 고용수. *21세기 한국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장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8, 11.

면 믿음이란 결국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믿음이란 말 자체가 매우 언약적인 표현인 셈이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며 나아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니 믿음을 통하여 우린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구원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의 이런 언약적 성격을 이해한다면 우린 행위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발전시킬 준비가 된 셈이다. 먼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언약적 표현인 것을 납득한다면 행위 역시 언약적 성격을 가진 것을 알아야 한다. 믿음과 행위의 이원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과 행위의 긴밀한 내적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행위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형성된 관계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관계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의 요구인 것이다. 그런 언약관계가 없었다면 그런 행위의 요구가 나올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십계명의 서언은 십계명의 수여자와 수납자의 관계를 먼저 규정한 것이고 나아가 십계명 자체가 그런 관계로부터 발생한 관계법 즉 언약법인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중 가장 근본법으로 제 1계명이 제시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1계명의 요구는 언약 관계를 존중하고 그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약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요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결국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도 거룩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구로 요약하셨을 것이다.

사실 인간 삶을 규율하는 모든 법도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때문에 거기에 남편, 아내 부모 자식으로서의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만일 인간이 무인고도에 홀로 지낸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40) 육한흠. *청년이여 일어나라*. (서울: 규장문화사, 1998), 25.

어떤 관계도 없다면 거기에 삶을 규율한 어떤 법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맺음이며, 행위란 그 관계로부터 발생한 관계법이라고 본다면 믿음과 행위의 이원론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에서 나며, 김세운박사는 그의 책에서 삭개오의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맺음의 '화평'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⁴¹⁾ 이렇게 믿음과 행위란 언약적 차원으로 보면 동일한 것이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상호간에 역동적인 주고받음을 통하여 발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는 행위를 말하지 않으며 행위가 없는 믿음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 언약맺음이라면 행위는 언약맺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언약법인 셈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맺어진 언약 관계는 언약법 준수를 통하여 유지 발전되는 것이고 만일 언약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언약관계는 위기에 처하거나 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믿음 없는 행위가 허상이듯이 행위 없는 믿음이란 그 자체가 비역사적이 되고 실체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성경에서 요구하는 행위란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 언약관계에 충실하라는 언약적 요구이고 언약법 준수의 요구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행위의 문제를 언약법적 차원에서 이해하게 될 때 믿음과 행위의 이원론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없는 행위가 법지상주의로서의 율법주의라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지상주의로서의 반법주의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맺음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관계로부터 요구되는 행위도 기쁨으로 행해야 할 것이며 행위를 통하여 그 믿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믿음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참된 인간됨의 지식의 기초를 제공해 주고, 인간존재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세계화에 기초한 올바른 자기 인식과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와 복종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나눔과 섬김으로,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책임 있는 관리자요 청지기로 살 수 있는 기초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기본전제이다.⁴²⁾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중 사랑 계명으로 요약되는 계명들의 정신을 주기도문 하는 자세로 지키지 않고, 기껏해야 예수께서 의식행위라고 비판한 유대 율법주의자들 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⁴³⁾ 목사들의 신학적 식견이 부족하여 그렇게 가르치고

41) 김세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71.

42) 고용수, *21세기 한국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23.

43) 김세운, *산상수훈과 한국교회* (강의안; 서울: 청어람, 2011), 5.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건강하고 복음적이어야 하는 것은 청년부 성장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며, 기초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 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기초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의 문제를 언급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와 청년사역의 근간이 이 복음의 기초에서 이 탈되는 현상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공동체성(소그룹)의 약화

2005년 7월부터 2년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 청년회장 100명과 회원 5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6퍼센트가 최근 이삼년 동안 청년회가 모이는 규모가 감소했다고 답한 바 있다.⁴⁴⁾ 그 만큼 이제 한국교회의 청년들이 교회 모임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쇠퇴 현상은 나름의 원인이 있지만, 한국교회의 청년감소라는 문제 속에는 ‘공동체성의 약화’라는 핵심적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학업과 직장생활의 긴장과 분주함으로 도망쳐 집으로 돌아오면 차고 문을 내리고 도피하기에 바쁘다. 바깥에 있는 현관 베란다의 열린 공간이 아니라, TV가 놓여 있는 거실 속으로, 컴퓨터앞으로 가기 바쁘다. 앞에서 언급했던 청년들의 현재적 진단처럼 그들은 스마트폰에 묻히고, 취업전쟁에 묻히고, 그런 생활방식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둘러 쌓여 있으면서도 고독 속에 살고 있으며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⁴⁵⁾ 점점 모이는 일에는 어색하면서도 갈수록 관계에 목말라 있는 관계를 갈망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치부 할 수도 있지만, 기독청년들도 앞의 2절에서 언급한 신앙생활에 대한 실증적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관계단절 현상은 청년사역 전반에 악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교회 역시 성장과 쇠퇴의 핵심적 요인으로 교회 공동체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⁶⁾ 청년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

44) 김상권, *청년실종 공동체성으로 공략하라*, 17.

45) Andy Stanley,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이종순 옮김 (서울: 디모테, 2006), 21.

을 탐방하면서 공통된 특징 하나는 소그룹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공동체성이란 한 공동체의 특징을 말하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각 구성원이 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다양한 의식과 가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동체성의 함양 여부에 따라 공동체의 활성화가 좌우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성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보다 성숙하기 위한 신앙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앤디 스탠리는 그의 책에서, “성숙해 가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다.”⁴⁷⁾라고 말하고 있다.

공동체 내에서 각 구성원이 행사하는 친밀한 상호작용과 서로 간에 주고받는 영향, 공동체의 공동 목적을 함께 추구하며 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 전 인격적 관계, 공식적, 비공식적 공동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와 공동체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한 공동 가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범을 공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성경적인 공동체는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⁴⁸⁾ 또한 청년사역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중요한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의 주변 교회들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상황을 바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은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7>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

교회 \ 소그룹	1년	2년	3년	5년 이상	소그룹(셀) 없음
G교회			○		
J교회		○			
O교회			○		
D교회					○
K교회		○			

<표 7> 에서와 같이, 거의 모든 교회들이 소그룹 사역을 활발하게 하지 않거나,

46) Dean R. Hoge and David A. Rooze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 Decline: 1950-1978* (New York: The Pilgrim. 1979)

47) Andy Stanley,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66.

48) Randy Frazee, *21세기 교회 연구 공동체*, 차성구 옮김 (서울: 좋은씨앗 2003), 22.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청년성장과 부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장년 출석대비 6~7퍼센트 정도라도 청년부가 모이는 교회는 미력하나마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그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회는 청년들이 마지막 붙들고 있던 손목마저도 놓쳐버린 형국이다.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이제는 누군가에 의하여 양육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때 기대고, 상담할 수 있는 마지막 길마저 차단된 상황이다. 이제는 청년 스스로가 알아서 세상의 어두움이 더 강하게 밀려오고, 영적인 비바람이 더 거세게 몰아치지만 혼자 버티고, 이겨 나가야 한다. 너무도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청년 실종’⁴⁹⁾의 시대라고 한다. 약화된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활성화 하지 않으면 ‘청년실종’ 현실을 극복 할 수 없다. 미국의 노스포인트 교회의 부흥의 핵심사역은 ‘소그룹이다’ 왜 꼭 소그룹이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들은 “소그룹을 하는 동안 경험한 삶의 변화와 만족감과 깊이 때문이다”⁵⁰⁾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도 셀그룹 사역은 이제 교회 부흥의 아주 중요한 핵심사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년사역 리더 발굴의 부재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청년사역자들의 우선적인 고민은 리더의 부재이다. 다시 말해 리더를 발굴하여 훈련시키는 과정이 없거나 리더로 세울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우성이다. 이러한 아우성은 장년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관과 공동체를 이끌어 갈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강내교회는 구역장의 평균 연령이 60대 이고, 그나마 젊은 일꾼은 여성들 몇 명만이 헌신자로 세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의 핑계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에 헬스클럽, 테니스장, 에어로빅, 다이어트, 영화관, 취미생활 하는 공간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나마 시간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왜 자기가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반문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상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49) 김상권, *청년실종 공동체성으로 공략하라* (서울: 크리스천리더, 2012), 22.

50) Andy Stanley,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94.

본 연구자가 섬기는 교회 또한 상황도 마찬가지다. 구역장과 구역리더들을 훈련하고 교육받고,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 불과 20퍼센트도 참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청년사역의 리듬이 끊기고 교회가 청년 사역에 대한 관심을 거두어들이고, 리더들을 찾고, 세우고, 훈련시키는데 소홀한 결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다.

성공적인 대학, 청년부 운영을 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은 리더, 특히 중견리더들의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리더를 찾고, 키우고 훈련하는 일은 청년사역과 성장과 부흥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이다. 청년 부흥은 한 부서의 사역이 아니라 전체교회를 체질화 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리더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5장에서 지역교회가 이러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고 청년성장과 부흥을 위한 목회 방안들을 대전성남교회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 4 장

청년사역이 활성화된 모델교회 연구

한국 교회 청년대학부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이라고 할 때, 청년대학부의 성장은 교회 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침체 가운데서도 활발한 사역을 통해 청년부 부흥을 이룬 교회들이 있다. 강남교회, 안양제일교회, 동안교회, 둔산제일교회, 무학교회 등이다. 청년 사역에 있어 모델이 되는 교회의 부흥 전략을 살피는 것은,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나름대로 교회의 형편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특색 있는 사역을 펼치고 있는 교회들을 선정하여 사역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소그룹을 통하여 청년부 부흥을 이루고 있는 강남교회 청년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선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부 또한 선교에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는 목회를 통하여 청년부 부흥을 이루고 있는 안양제일교회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면서 교회와 청년부 부흥을 이루고 있는 동안교회 청년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강남교회

강남교회는 서울시 노량진에 위치해 있는 교회로서 주변에 고시생들이 밀집되어 고시준비를 하느라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청년들이 많다. 장년성도는 4천명 출석에 15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출석하고 있다. 미혼청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다음 세대, 이 민족과 나라, 한국교회를 책임질 것을 준비하는 사랑의 기적이 있는 영성공동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비전 기도문으로 하나

로 뭉쳐 있다.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기도문

주여 우리로 갈급케 하사 기도와 묵상의 영성을 회복케 하소서.
 주여 우리로 죄와 싸우게 하사 피 흘리기까지 청년의 경건을 사수케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정을 품게 하사 영혼구원의 사명청년에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사랑케 하사 하나 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훈련받게 하사 다음세대의 영적 리더로 서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헌신케 하사 평생 주의 일에 쓰임 받는 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부흥케 하사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강남교회는 이 기도문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4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1. 비전과 사역 철학

강남교회의 4대 비전은 1) 차별화된 젊은이 예배, 2) 건강한 공동체 양성, 3) 목적 지향적 소그룹 만들기, 4) 헌신된 리더십 개발 이며 이와같이 4대 비전을 제시하여 전체 청년들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비전을 향하여 한마음으로 나아가 건강한 청년 부흥을 이룬다.

2. 사역의 실제와 분석

가. 양육과정

양육과정은 관심자, 참석자, 예배자, 헌신자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 관심자: 친구따라 한 번 교회에 와본 자로서, 기독교와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는 자로 정의 한다. 물론 전도대상자이다. 주일 함께 앉은 친구가 주중에 접촉하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유한다.

- 참석자: 전도축제나, 캠퍼스 모임에 나온자로서, 믿음없이 불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였다. 역시 소그룹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소그룹에 역할을 부여하여 소속감을 가지고 모임에 참석하도록 유

도한다.

- 예배자: 새가족반, 젊은이 예배에 참석한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자로서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간증이 있는 자다.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도 좋다. 삶 나눔에 집중적으로 참석하고, 일일리더나 부리더로 세워본다.

- 헌신자: 삶이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자로서, 성숙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다.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자이다. 리더비전나누기에 초대 하고, 사역팀에 합류시킨다. 소그룹원을 챙기는 역할등을 맡긴다.

나. 사역

예배, 양육, 전도, 교제라고 하는 4가지 사역에 집중한다. 청년부 전체 사역이 4가지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진행된다. 사역의 핵심은 공동체 사역 즉 소그룹이다. <표 8> 은 청년 전체의 훈련과 양육 시스템을 표로 담고 있다.

<표 8> 훈련자 양육시스템

훈련안내	일정
GBS(소그룹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LTS(리더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ITS(정체성 훈련학교)1단계	매주 토요일 오후(4개월 과정)
ITS(정체성 훈련학교)2단계	매주 수요일 저녁(4개월 과정)
ITS(정체성 훈련학교)3단계	매주 목요일 저녁(4개월과정)
MTS(멘토링 모임)	매주 주일저녁
사역팀 모임안내	매달 셋째주 주일저녁

그 외에 특성화 모임이라고 해서 캠퍼스 모임, 고시 준비생 모임, 대입준비생 모임, 포레모임 등으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새가족 등록 절차

강남교회의 새가족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다.

- 언제: 매주 주일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 누구: 누구나 등록하기를 원하는 청년
- 어떻게: 5주동안 등록하신 청년들을 전담하여 섬길 리더들이 준비 되어 있다.
- 그후: 5주 양육 수료후 일반 양육조로 편성된다.
- 담당: 10명의 새가족 담당 간사와 리더들이 준비되어 있다.
- 문의: 새가족 전담 교역자

또한 강남교회의 특성은 지역에 고시원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잘 활용하였다. 공부와 성공과 삶에 지친 청년들에게 큰 기둥이 되어주고 쉼이 되어주는 그들을 품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다. 그 상황에 맞게 담임목사의 설교도 깊이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에게 아침마다 매일 식사를 제공한다. 약 200-300명의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3. 평가

강남교회의 청년부의 부흥의 요소는 첫째, 담임목사의 설교, 둘째, 노량진 고시생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 셋째, 13년째 진행해오고 있는 새벽밥 나눠주는 이미지 사역이며 이러한 사역이 주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를 통하여 좋은 입소문이 났고, 그 입소문을 통하여 청년들이 모여 들게 되므로 청년부가 활성화 되고, 부흥하게 된 원동력이다. 또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청년부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들을 나름대로 잘 극복하므로 청년, 대학부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강남교회의 청년부 사역을 간략하게 평가하고자 한다.

가. 전문사역자가 있는가?

나름대로 청년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담임목사의 전적인 협력이 있었고, 담임목사와 청년사역자와의 관계가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청년사역자에게 청년부실을 따로 마련해 주고, 그 곳에서 청년부사역을 위한

로드맵과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하고 기도 할 수 있는 청년사역자만의 공간이 있었다. 청년사역자에게 충분한 대우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년사역에만 집중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교회가 마련해 주고 있었다. 청년사역자가 그 교회에 사역한 지가 4년이 넘어서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년사역자의 사역이 안정화 되어 있었다.

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선포가 있는가?

청년사역자가 풀러에서 배움을 갖고 오신 분이었는데, 설교를 몇 번 들어본 결과 상당히 복음적이었으며, 복음에 대한 이해가 탁월함을 알 수 있었다. 몇몇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진 결과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자유함이 억지로가 아닌, 청년 스스로 헌신 가운데 나가게 하고, 그들을 행복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담임목사의 설교자체가 너무도 복음적이었다. 청년들은 청년부 모임에서나, 장년 예배에서나 어디서든지 복음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신앙생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한마디를 외치고 나왔다. 이 교회 청년들은 참으로 행복한 청년들입니다.

다. 소그룹사역이 진행되고 있는가?

강남교회의 소그룹사역은 너무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1500명의 청년들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소그룹이었다. 잘 훈련된 리더들로 하여금 캠퍼스와 고시촌등에서 원활하게 셀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청년들의 각자 상황에 맞는 셀그룹을 만들어 서로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함께 고민과 비전을 나누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아주 건강한 형태의 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셀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전문 사역자 밑에 두 분의 전도사가 보좌하며 소그룹활동과 청년부 사역을 협력하고 있었다.

라. 리더가 세워지고 있는가?

소그룹리더를 세우기 위하여 소그룹리더에 대한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ITS(정체성 훈련학교)라고 하는 3단계의 체계를 통하여 셀리더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었다. 1단계가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되고, 3단계 까지, 결국 1년 동안 체

계적으로 리더 그룹들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으며, 3개월에 한차례씩 리더 수련회를 통하여 집중적인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자가 발견한 문제점이 있었다. 청년사역자들이 나름대로 잘 세워지고 교회의 협력을 받아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본 연구자가 강남교회를 방문했을때는 담임목사가 다른 교회로 청빙 받아 이동한 상태였는데,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잘 되는 것처럼만 보이던 청년들이 담임목사의 이동 2개월 만에 500명의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결국 한국교회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시스템과 훈련의 문제도 있지만, 한국교회 특성상 담임목회자의 역량이 전교인들에게 너무 심각하게 미치고 있는 구조라는 장점과 단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결국 건강한 청년성장과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이상화된 신앙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 2 절 안양제일교회

안양제일교회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해 있는 교회로서 장년 5,300명 출석에 청년 1,500명이 출석하는 성장 가능성이 많은 교회이다. 지역에 인구가 64만 정도이며, 대학 캠퍼스가 5-6개 정도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의 분포도를 보면 인근 대학교에서 오는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은 청년들이 어느 정도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경우다.

1. 비전과 사역 철학

안양제일교회의 비전은 “지역사회를 섬겨 변혁시키는 성경적 교회(사도행전적 교회) 세우기”이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담임목사는 선교적 교회론을 바탕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이와 일맥상통하게 청년부 비전 또한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이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하나님나라 구현=영혼구원=선교)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청년부가 정한 방향이다.

안양제일교회가 제시하는 올바른 청년상은 아래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청년(하나님사랑)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며 사는 청년(이웃사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청년(교회사랑)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청년(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청년부 교역자들과 리더는 공동체와 소그룹에 속한 청년들을 청년상(象)에 입각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런 청년을 세워나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2. 사역의 실제와 분석

가. 8대 핵심전략

8대 핵심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리역할을 하는 전도, 둘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알아가는 예배, 셋째 즐겁고 행복한 교제, 넷째 전인적인 성장소그룹, 다섯째 열정적인 영성, 여섯째 제자(사역자)를 세우는 양육훈련, 일곱째 은사중심적 사역, 여덟째 세계선교비전인 선교사 파송이다.

나. 예배가 살아야 청년이 산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과 활동이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예배’는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예배에는 신앙의 모든 요소가 농축되어 있어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시킨다. 신앙고백, 죄용서와 회복, 찬양, 기도, 말씀, 응답과 결단, 성도의 교제 등 신앙생활의 핵심요소들이 예배 안에는 그대로 녹아 있다. 그뿐 아니라 예배는 살아있는 기독교 역사의 현장이다. 예배자 각 사람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예배가 믿는 사람들만의 잔치로 끝나면 이 또한 온전한 예배는 아니다. 예배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즉 예배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룩함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포용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안양제일교회는 예배팀을 구성하였다. 예배팀은 예배 기획팀(안내팀, 헌금팀), 예배 영

상팀, 예배 엔진팀, 찬양팀-싱어팀, 세션팀, 워십팀, 엔진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4개 팀에는 각각 팀장이 있다. <표 9>는 예배팀의 사역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이 <표 9>를 보면 그들과 각팀의 주요 사역 내용을 보다 잘 알 수 있다.

<표 9> 예배팀의 사역내용

예배 기획팀	예배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며, 예배 섬김이 들을 교육한다.
예배 영상팀	예배 시간에 화면으로 송출되는 자막과 PPT등 영상 전체를 담당한다.
예배 엔진팀	예배시간 및 행사의 모든 음향과 장비를 담당한다.
예배 찬양팀	예배시간의 모든 찬양을 선곡하고 진행한다.

예배 임원은 청년부의 비전과 담당 교역자의 목회 방향에 따라 예배가 준비되고, 드러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매주 예배 콘티를 작성하고, 예배 진행을 총괄하며, 예배 후 피드백⁵¹⁾을 통해 더욱 온전한 예배가 드러 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들은 예배팀을 교육시키는데, 예배 섬김이 교육은 매월 첫째 주일 12시 30분에 실시한다. 대상은 헌금위원과 안내 위원이다. 공동체마다 한 달씩 돌아가며 예배를 섬기는데, 담당공동체에서 뽑힌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그리고 청년부 전담교역자(목사)가 진행하는 예배팀 팀장들을 위한 정기적 교육시간(매달 둘째 주일 오후 6시)도 있다. <표10>은 예배팀장 교육시간을 표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51) 피드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예배섬김이로서의 자신을 평가&이유, 2.교육에 대한 만족 고&이유, 3.섬기면서 받은 감동나눔&건의사항, 4.예배 섬김이로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할 것인가?

〈표 10〉 예배팀장 교육시간

담당자	내용	소요시간
예배 담당 교역자	성경말씀을 통해 예배섬김이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역할과 마음가짐 등을 배움	30분
헌금, 안내 팀장	헌금, 안내 위원의 실질적인 사역을 배움	15분
청년부 전담 목사	찬양, 말씀, 기도를 통하여 소명의식을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	1시간 30분

안양제일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부흥하는 교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표출하는 곳이 있다.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이 함께 하나로 바라보는 목표지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선교다. 그렇게 생겨나는 교회의 영적 에너지들이 선교라고 하는 목표에 전부 부어지므로 또 다른 사람들과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요한 매개체가 역시 소그룹이었다. 그 큰 즐거움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은 소그룹사역이었다. 예배 못지않게 큰 비중을 두고 진행되는 사역이 소그룹사역이었다.

다. 사역 시스템

안양제일교회의 청년부 사역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등록 - 양육임원을 통하여 새친구반(3주) - 소그룹 반(4주) - 사역자 훈련 4주
 과정 - 제자훈련 4주 과정 - 전도 폭발 훈련 - 헌신훈련 - 선교자로 세운다. : 선교지로 단기 파송되는 경우도 있고, 일상적인 삶속에서 선교자(하나님사랑, 이웃사랑)로 살아가도록 세운다.

3. 평가

안양제일교회는 청년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왜 양육받고, 예배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안양제일교회 청년부 또한 4가지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평가 하고자 한다.

가. 전문사역자가 있는가?

안양제일교회는 전문사역자가 3명의 전도사와 함께 청년부 사역을 전담하고 있었다. 청년부실과 청년사역자의 사무실이 별관에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청년이라는 공동체성을 높이고, 소속감을 가지고 청년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청년사역자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와 담임목사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청년사역자가 알아서 심방하고, 알아서 청년사역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역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청년전담사역자가 그 교회에서 성장해왔고, 사역자가 되어 청년부를 담당하는 아주 이상적인 사역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5년째 그 교회에서 청년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수 십 년 동안 청년들과 함께 생활한 것처럼, 청년들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담임목회자의 목회비전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청년사역을 마치 담임목회자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흥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사역시스템을 보는 것 같았다.

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선포가 있는가?

청년부 사역자가 선포하고 있는 설교가 복음적인가? 를 본 연구자가 섬기는 지역교회를 주변으로 조사한 기준으로 볼때 80~90퍼센트는 복음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선포가 청년들을 이웃사랑과 섬김과 선교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삶과 그들의 비전과 미래가운데로 연결되어지는 제자의 삶이 나타나고 있었다. 자신들은 고된 길을 가면서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타자를 위해 사는 것이 익숙한 삶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복음이 능력은 그리면서도 힘들어 하지 않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로 주어진 삶으로 당연히 여기고 있었다. 실제로 그 교회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고 또는 선교적 삶을 위하여 과감히 선교지로 떠나는 청년들이 한 해에 20~30명 정도씩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염려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것은 그러한 복음의 열정과 영향력이 전체 청년으로 번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다. 소그룹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양제일교회는 철저하게 소그룹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히려 안양제일교회는 예배와 소그룹사역이 청년사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보통 셀당 7~8명의 셀원 들이 한조가 되어 작은 교회공동체로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영적 가족의 역할을 서로 대행하고 있었다. 교회나 가정, 직장, 캠퍼스에서 느끼지 못하는 많은 부분의 영향력들이 셀 모임을 통하여 보완되며, 보충되고 있었다. 셀 사역이 선교비전과 어우러지면서 확실한 목표아래 동기부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캠퍼스, 직장, 가정의 주변에서 셀원 들의 상황에 맞도록 셀별로 셀장의 주도아래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셀장 들에게는 셀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적게 받도록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이러한 셀 활동은 상시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라. 리더가 세워지고 있는가?

사역의 실제와 분석의 8대 핵심전략에 보면 즐겁고 행복한 교제라는 타이틀의 성장소그룹과 열정적인 영성으로 제자(리더)를 세우는 양육훈련이 단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금도 청년부 소그룹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안양제일교회는 끊임없이 다음을 책임질 미래 리더들을 꾸준히 선발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으므로 1세대에서 끝나고 마는 단기적 성장이 아닌, 다음세대를 세우는 장기적인 리더 양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미래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하므로 청년사역자들과 리더들이 현재의 사역에도 집중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복음의 영향력이 전체 청년들에게 골고루 스며드는 부분에서는 미진하게 느껴졌다. 그런 결과가 청년들의 헌신도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었다. 한마디로 열정과 열심으로 섬기고 활동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서서히 공동체에서 낙오되고 이탈되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결국 안양제일교회의 미래는 바른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이 청년들에게 소외됨이 없이 곳곳에 스며들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복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보완 될 때, 한단계 더 성장하리라 생각된다.

제 3 절 동안교회

동안교회는 청년부 리더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유기적으로 교역자와 협력하여 셀을 활성화 시키고, 셀을 통하여 청년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므로 청년부 전체의 사역을 활성화 시키는 교회이다. 장년 5천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청년출석이 2천명 정도 되는 청년부 사역이 매우 활성화 된 교회이다. 인근 지역에 한국의국어대학교를 비롯해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등 몇 개의 대학이 있다.

1. 비전과 사역 철학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며 전교인이 선교사의 영성으로 훈련되어 '삶의 현장을 하나님나라로' 변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현 시대는 첫째, 감성이 중요시 되는 시대로 보고 있다. 이 말은 삶의 상처가 우리에게 더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는 사역으로 동안교회는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감성의 중요한 장점인 창조성은 더욱 활발히 하고, 감성이 놓이기 쉬운 책임감은 강조하는 교회이다.

둘째, 개성을 중요시하는 자기 중심적인 문화가 활발한 시대로 보고 있다. 자기 중심적 문화는 이미 개인주의 뿐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 혹은 민족주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은 공동체성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리더십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다원화와 혼합주의라는 흐름이다. 다원화와 혼합은 종교,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새로운 윤리와 도덕,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요구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앞에 영성과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병든 문화에 무차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동안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성장이 있는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

2. 사역의 실제와 분석

가. 사역집중 사항

동안교회는 새생명 반, 풍성한 교회 생활, 교회와 목양, 중보기도, 양육, 셀리더 훈련 등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반적인 사역 구조는 다음과 같다.

새가족 - 예배 - 새가족부(각 연령별 연합회에서 새가족의 상황에 맞게 스텝 리더가 인도) - 부서모임 - 셀 - 양육 - 리더십 훈련 - 크리스찬 리더십(중보기도학교, Q.T학교, 바나바 사역 팀)로 모든 훈련 일정이 마쳐진다.

새생명 반에서 처음 교회 나온 청년을 맞이한다. 그다음 예배에 참석하는데, 이때 미리 파악 하여 그 청년에 맞는 리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를 안내한다.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부실로 이동하면 새가족 스텝 리더들이 새로운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부서(셀)가 어디인지를 파악하여 소속된 셀리더가 그를 부서 모임으로 안내한다. 1부서당 인원은 80-100명정도로 하고 있다. 부서에서 4주간 양육을 받는다. 그리고 4주간을 통하여 파악되고 적용된 청년을 셀(소그룹) 모임에 초청한다. 그 다음 다시 5주간 MTS양육에 들어간다. 이 과정이 마쳐지면 LTS라고 하는 셀리더 훈련(리더십 훈련)에 들어간다. 그 이후에는 크리스찬 리더십 학교, 중보기도 학교, Q.T학교, 바나바 섬김사역 학교에 들어가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하게 한다.

셀리더는 부서임원과 스텝으로 구성하여 행정과 셀원들 섬김을 구분하고 있다. 셀리더 훈련은 청년들 중에서 훈련된 교육 가능한 청년들로 하여금 이루어지며, 그들을 담당 전임 지도 목사가 5-8주 과정으로 훈련한다.

청년부는 1부에서 8부 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새가족이 부서나 셀에 소속 될 때에는 나이, 캠퍼스에 관계없이 그 청년의 처한 상황과 성향등을 종합하여 소속되게 한다.

나. 캠퍼스 사역

대학 캠퍼스에서는 캠퍼스 별로 나름의 사역과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캠퍼스 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매주, 또는 매일 아침 또는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큐티 모임을 갖는다. 그 곳에서 캠퍼스 사역에 대한 전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 스스로가 거

룩을 위한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회자들은 주기적인 캠퍼스 심방을 강화하여 캠퍼스 선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사역들을 기초로 하여 1년에 300명 정도가 등록하고 있는데, 약 150명 정도가 정착하고 있다.

3. 평가

동안교회의 청년들의 특징은 평균연령이 28세였다. 과거에는 김동호목사의 설교가 부흥의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의 담임목사인 김형석 목사는 청년들에게 권한과 리더십을 위임하여 청년들 스스로가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동안교회의 청년부 사역을 아래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가. 전문사역자가 있는가?

동안교회 청년부는 8부로 되어 있는데, 세 명의 청년담당 교역자가 상황에 따라 3부씩 담당하고 있고, 때로는 연합하여 청년부 사역을 짜임새 있게 사역하고 있다. 청년사역자에게 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담임목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름대로 청년사역자에 대한 대우나, 복지, 처우개선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담임목사의 청년사역자들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돈독하여 오히려 담임목사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청년사역이 지장을 초래하는 교회도 있는 것에 비하면 동안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주 건강하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의 평균 사역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 그 만큼 청년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5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맺게 되는 신뢰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돈독한 신뢰 관계로 나타나고 있었다. 때로는 형으로, 친구로, 상담자로, 영적인 안내자로, 지원자로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역 구조가 갖추어져 있었다.

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선포가 있는가?

청년사역자들이 예배와 말씀과 삶에 대한 철저한 연합을 강조하는 바른 복음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2:17)는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복음을 통한 감격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담임목사의 목회 방향과 청년사역자들의 목회 방향이 한 곳을 향하여 있었다. 그것이 삶을 통한 예배,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라고 하는 슬로건이다. 이 외침이 그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삶을 붙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복음의 바른 이해와 선포는 청년들로 하여금 문화사역에 대한 욕구보다,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타나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 소그룹사역이 진행되고 있는가?

동안교회의 양육시스템에 보면, 소그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눈으로 알 수 있다. 새가족 - 예배 - 새가족부(각 연령별 연합회에서 새가족의 상황에 맞게 스텝 리더가 인도) - 부서모임 - 셀 - 양육 - 리더십 훈련 - 크리스찬 리더십(중보 기도학교, Q.T학교, 바나바 사역 팀) 로 모든 훈련 일정이 마쳐진다. 청년들이 소그룹을 비껴 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그들을 연합으로 에워싸므로 반드시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동안교회 주변에는 특히 대학 캠퍼스가 5~6개가 위치하고 있었다. 캠퍼스에서는 하나 같이 하루에 반드시 아침과 저녁 중에서 한 번을 택하여 셀모임에 참석하도록 일상에서 소그룹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셀이라는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 관계성이 청년부의 성장과 부흥에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라. 리더가 세워지고 있는가?

담임목사와 청년담당 목회자는 청년사역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성장’으로 보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현재 신앙생활에 행복해 하고, 그 기쁨과 감격이 자발적 헌신으로 이어지는가에 따라 교회 성장의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었다. 청년사역에 대한 독립성을 부여하고, 청년들을 하나의 수단이나 대상화 하지 않

고, 목적화 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교회 성장에 필요한 존재, 교회 사역의 일꾼이 아니라, 사랑받고, 양육 받아야 할 은혜 받음이 목적인 청년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항목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화이다. 움직이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과 삶의 균형이 에너지가 되어 리더그룹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와 기꺼이 훈련 받기를 자처하는 선순환의 형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자원된 리더들을 LTS라고 하는 셀리더 훈련(리더십 훈련)에 들어가게 한다. 그 이후에는 크리스찬 리더십 학교, 중보기도 학교, Q.T학교, 바나바 섬김사역 학교에 들어가 훈련받고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하게 한다.

셀리더는 부서임원과 스템으로 구성하여 행정과 셀원들 섬김을 구분하고 있다. 셀리더 훈련은 청년들 중에서 훈련된 교육 가능한 청년들로 하여금 이루어지며, 그들을 담당하는 전임 지도 목사가 5-8주 과정으로 훈련한다.

동안교회는 전인적인 청년사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신앙과 삶의 균형이 동안교회 청년부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되고 있었다. 한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대학 캠퍼스 사역자들과의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가끔 그들과 충돌 현상내지, 더 강력한 부흥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캠퍼스 사역자 따로, 교회 사역자 따로라고 하는 서로 윈윈 되어 지지 않는 사역의 구조는 앞으로도 캠퍼스나 교회 청년 사역에 있어서 부흥과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동안교회는 특히 주변에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도래 할 것으로 여겨진다. 캠퍼스와의 협력사역이 동안교회의 제 2의 부흥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제 5 장

지역 교회에서의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대전성남교회를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역교회에서의 청년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대전의 성남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먼저, 대전성남교회의 청년 사역을 위한 목회적 분석을 하 것이며, 그리고 대전성남교회 목회 현황도 파악할 것이다. 이후에 대전성남교회 청년대학부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대전성남교회의 청년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

제 1 절 대전성남교회의 청년 사역을 위한 목회적 분석

본 절에서는 대전성남교회의 청년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선이해로서 대전시의 지리적 상황과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대전성남교회의 주변 선교를 위한 현황분석 및 지역적 특성도 파악해 볼 것이다.

1. 대전시의 지리적 상황과 현황

대전광역시에는 정부 3청사가 둔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어서 그동안 많은 인구가 타 지역에서 유입되었다. 최근에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의 입지가 대전으로 확정되고, 서남부권에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선교역량을 집중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한 도시이다. 대덕 연구단지에는 수 많은 연구기업과 연구 인력들이 집중되어 있고, 앞으로도 수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

황에 힘입어 2012년말 기준 대전시청에서 발표한 대전시 인구는 총 153만 9154명이다. 또한 꾸준하게 타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2011년에는 3,344명의 인구가 순유입 되어 인구이동률이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활발한 지역이다.

지난 5년간 대전의 인구 증가율은 4.1퍼센트로 전국 평균(2.8%)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의 대전의 출생아수 증가율은 3.4퍼센트로 전국 평균(1.2%)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러한 요소 뿐 아니라 대전지역은 앞으로도 주변 지역인 조치원과 공주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복합 중심도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구의 유입과 이동이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들은 교회입장에서 선교의 장이 그 만큼 넓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어진다.

2. 대전성남교회 주변 선교를 위한 현황분석 및 지역적 특성

대전광역시에는 국립대학교가 9개 있고, 사립대학교가 11개, 2년제 대학이 5개 등 총 25개의 대학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생수만 하더라도 113,494명으로⁵²⁾ 선교 최대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다.

그만큼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동인구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곧 청년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래에 보기 드문 청년선교와 부흥과 성장의 황금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황금시기를 활용 할 수 있는 대전지역 교회들의 선교역량은 얼마나 될까?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대학생과 청년선교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전지역 선교단체는 총 11개이고, 활동하는 간사들은 전체를 합해도 약 140여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⁵³⁾ 그렇다고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선교활동이 활발한가?라고 질문한다면 분명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자가 논문을 위하여 주변 교회들의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청년사역자들의 현황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지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선교활동은 전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조사한 <표 8> 과 <표 9> 가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그만큼 교회가 대학청년부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생각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52) 대전시청 통계정보, 2012년도 기준.

53) 대전지역 학원복음화 협의회 자료.

제 2 절 대전성남교회 목회 현황

본 절에서는 먼저 대전성남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간략히 살펴본 후, 본 연구자가 섬긴 대전성남교회 청년대학부의 면모를 파악해 보고 목회비전등을 살펴볼 것이다.

1. 대전성남교회 소개

대전성남교회는 1955년에 창립되어 2013년 기준으로 5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현재 담임목사인 정민량 목사는 1994년 제 7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시무하고 있으며, 대전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행복이 넘치고 가정의 회복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이다.

특히 대전성남교회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바른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이다.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바른 삶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가르침과 훈련이 잘 되고 있는, 말씀과 양육과 가르침과 훈련이 균형 잡힌 교회이다. 교회의 목표는 첫째, 말씀 중심의 교회 둘째, 선교중심의 교회 셋째, 변화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데 앞장서고 있다. 몇 년 전 부터 선교에 비전을 두고 카자흐스탄에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 복음의 불모지인 카자흐스탄을 복음화 하기 위한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대전성남교회는 2013년 현재 출석교인이 장년 1100명, 교육부서 200명, 청년 100명, 총 140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다. 특별히 ‘주향기 웨마 키즈 스쿨’이라는 어린이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다음세대 기독인재를 키우고 양성하는 일에 교회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담임목사의 바른 목회 리더십으로 인하여 말씀, 교육, 훈련으로 세워진 성도들의 바른 신앙은 어떤 이단들의 침투에도 끄떡하지 않고, 교회 본연의 선교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담임목사가 대전성남교회에서 오래 사역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와 성도들의 성향, 지역적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특히, 한 가정에서 부부중 혼자 신앙 생활하는 가정들의 고통을 보면서, 가정 회복에 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던 중 한국교회에서는 아직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 주일’을 만들어 가정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달에 한 주는 ‘가정주일’로서 모든 봉사활동을 그치고, 심지어 찬양대도 서지 않고, 점심식사도 교회 식당에서 하지 않고, 온 식구가 함께 손 잡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돌아가서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점심을 하고, 오후 예배는 따로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가정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 가족구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부부 중, 자녀와 부모중 혼자 신앙생활 하는 가정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 가족 복음화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 대전성남교회 청년대학부 소개와 사역 비전

대전성남교회의 청년 등록수는 현재 110여명, 출석수는 8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다. 청년대학부 사역이 현재까지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평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장과 부흥을 위한 희망을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양적, 질적 성장이 있었던 것은 큰 희망이며, 긍정요소이다. 셀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20여명의 임원과 셀장들이 교역자와 함께 청년대학부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예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청년대학부 전담 사역자는 세워져 있지 않다. 다음세대의 리더 ‘솔리테오’라는 슬로건을 걸고, 첫째, 예배를 사모하는 리더 둘째, 말씀 안에서 온전한 주일을 섬기는 청년리더 셋째는, 셀 모임을 통하여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청년리더라는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청년대학부 출석 숫자가 30명 정도 였으니 그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부흥의 기쁨은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교회 가까운 주변에는 한남대학교, 대전대학교, 우송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우송정보대학교 등 6개의 대학이 자리하고 있다. 선교여건은 매우 좋은 상황이나 교회 내적인 복잡한 교회 사역 구조는 선뜻 청년대학부에 올인 할 수 없

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청년담당사역자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역과 병행하므로 청년사역이 장애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본 연구자는 나름대로 청년대학부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다. 청년대학부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이 장애요소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청년대학부의 부흥과 성장을 장담 할 수 없다. 앞에서 열거한 청년대학부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을 필자는 어떻게 극복하고 부흥과 성장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목회 방안을 대전성남교회를 중심으로 다음 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절 대전성남교회 청년대학부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본 절에서는 대전성남교회 청년대학부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네 가지 측면, 즉 전문화된 청년 사역자를 세우고 복음선포와 이해하고 공동체성(소그룹, 셀)을 활성화하고 마지막 청년사역 리더를 세우는 것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전문화된 청년 사역자를 세움

가. 청년 사역자를 위한 교회의 적극적 지원

대전성남교회는 도시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교회 역사가 58년된 아주 전통적인 교회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목회 방향이 장년부에 맞추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는 청년 사역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청년들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약속한다. 그러나 청년부 전담사역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본 연구자가 서울에 청년목회가 활성화 된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들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고 피부로 느낀 것은? 청년전담 사역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전성남교회는 다른 부분에서는 청년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아직 전담사역자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담사역자가 없다는 의미는 청년사역자가 교회의 다른 사역과 병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청년담당 목사가 교회의 다른 사역을 기본적으로 4개 정도를 맡고 있는 현실이다. 즉 이러한 구조로는 사역자가 청년사역에만 집중 할 수 없다. 현대를 변화의 시대라고 한다. 다른 사역을 병행하면서는 청년들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 할 수 없다. 시대에 뒤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청년담당 사역자는 청년들과 함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럴때 비로소 청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돌봄과 집중된 사역을 할 수가 있다.

다른 여러 부서를 맡으면서 청년부 사역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쉽게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무엇인가를 계획했다가도 교회 일이 우선되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계획과 만남과 사역이 포기 되어 질 때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청년부흥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한계에서 더 이상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게 된다. 다음세대를 세우고, 앞으로 교회의 근간이 되고 기둥이 될 청년들을 향한 투자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해결 될 수 없다. 대전성남교회 주변의 교회들 중에도 조사에 의하면, 전담 청년사역자가 있는 교회들은 장년 출석대비 청년의 비중이 20퍼센트정도 차지한다. 그러나 대전성남교회는 10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있다.

청년사역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긴 안목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 대전 성남교회도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하루 빨리 청년전담사역자가 세워져서 청년들을 사역자가 아닌 돌봄과 양육의 대상으로 보고, 목양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나. 사역자의 자격을 갖춰라

아무리 청년전담 사역자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사역자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청년성장과 부흥을 기대 할 수는 없다. 교회가 어렵게 마련해 준 자리라고 하면 그 자리는 본인 개인의 자리가 아니고 청년들의 영혼과 삶을 책임져야 하는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자리라는 것을 한 순간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런 각오가운데 사역자 스스로도 자기개발을 게을리하거나 나태해져서는 안된다. 충분한 영성과 섬김과 사랑과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돌봄을 가질 수 있는 선한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 사역자는 아래의 몇가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청년사역을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

(1) Q.T시간을 가져라

큐티는 영성훈련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함께 하는 경건훈련이다. 그러므로 큐티 시간을 갖는 것은 청년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⁵⁴⁾

(2) 자기개발을 위한 성경공부

목회자의 전문 영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다. 모든 사역의 근간이 되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일은 사역의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바이블 아카데미 1년 과정을 수료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장제목을 외우고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훈련하였다. 대전 태평동에 위치한 바이블아카데미에서 회원들에게는 성경공부 사이트가 열려있어서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1시간 30분씩 성경공부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공부의 특징은 장마다 제목을 만들어 그 제목을 외우므로, 어떤 내용이 어느 책,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필요한 말씀을 그때마다 쉽게 찾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성경공부 시스템으로 성경공부 과정이 10개월 코스로 되어 있고, 그 코스가 마쳐지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는 공부 방법이다.

이 방법을 가지고 청년예배에 활용하여 설교를 대신 한 경우도 있는데, 청년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와 관심을 받은 적이 있다.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교를 대치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3) 영성을 훈련하라

지도자의 영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목회자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목회자의 영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품은 사역의 성패와 관계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청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모 교회의 목회자가 소속교회의 이성과 큰 문제를 일으켜 세상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고, 교회는 엄청난 시험과 고통을 받

54) 참조: 나머지는 부록 1을 참조해라.

고, 교인들은 심한 충격 속에 흩어지는 아픔을 겪은 것을 이루는 기억하고 있다. 그 교회가 청년사역의 불꽃이 타올랐던, 한국교회에 청년사역의 모델이 될 정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다 보니, 쉽게 그런 문제에 노출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혹을 이길 만한 영성이 준비되고 훈련 되지 못했다는 것에 큰 허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목회자의 성품이 동반되는 영성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스스로 그 훈련을 겪었고, 이 논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수 많은 목회자들이 영성훈련을 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소개하고자 한다.

‘영성훈련학교’라고 하는 목회컨설팅 학교에서 제작한 교재를 가지고, 세미나를 통하여 훈련을 하였다⁵⁵⁾. 지금도 본 연구자는 그 훈련을 반복하고 있고, 청년사역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⁵⁶⁾

다. 청년들과의 신뢰를 위해 노력하라

(1) 리더와의 만남을 강화하라.

대전성남교회 청년대학부는 리더그룹이 있다. 임원, 또래지기, 또래장, 팀의 리더인 팀장, 셀의 리더인 셀장과 셀 대표들을 포함하여 20여명의 리더들이 있다. 청년담당 목회자의 청년대학부 목회의 성공여부는 사실 이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성남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리더들과 매주 주일 예배 이전에 토요 모임을 가진다. 매주 토요일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와 말씀 나누는 모임을 가진다. 또한 이후에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또래원, 셀원, 팀원 및 사역을 위하여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주일 준비를 하고 있다. 때로는 미팅 후에 간단한 친교모임을 가지기도 한다. 사역으로 지치기 쉬운 리더들을 사역자가 돌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이들이 지치면 모든 청년들이 지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청년담당목회자가 돌보고, 협력자로 만드는 것은 청년사역의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된다. 김성진은 그의 책에서 인간관계 멘토그룹이 20퍼센트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⁵⁷⁾

55) 김성진, *영성훈련학교 교재* (서울: 목회전략컨설팅 연구소, 2005) 이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영성의 단계, 영성의 근원, 영성의 성숙, 영성의 훈련이 그것이다.

56) 참조: 부록 2를 참조해라.

주일 예배 후에는 리더들과 간단한 모임을 주선한다. 영화, 스포츠, 간단한 식사 모임등을 주선하여 리더들과 친밀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리더들의 집안에 애경사가 있을시, 다른 리더들과 함께 찾아가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다. 일반 청년들과도 만남을 수시로 가지고 있다. 공부하는 청년들은 캠퍼스에서 고단한 사람가운데 지치기 쉬운 청년들에게 때로는 등산, 스포츠 등을 통하여,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직장근처를 찾아가 만남을 갖고 그들의 삶의 노고와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므로 그들의 삶 가운데 목회자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한다. 청년들의 생일에는 담당 셀장들과 같이 집 근처 또는 직장근처로 찾아가 같이 케이크를 자르며 축하해 준다.

(2) 상담을 강화하라

본 연구자는 청년들과 상담을 수시로 즐겨 한다. 왜냐하면 상담은 청년들의 변화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특히 도형상담학을 공부하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도형상담을 하고 있다. 도형상담은 청년들의 세밀한 내적 상태, 기질, 지금 안고 있는 문제, 고민, 진로에 대한 선택, 성격, 영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 높은 상담방법이다. 도형상담은 청년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알 수 있다. 보통 도형상담의 주기는 한 사람에 한하여 1개월 정도의 주기를 가진다. 오늘 받은 도형상담과 1개월 후에 받은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청년들의 신앙적, 이성적, 가정적, 학교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진단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러한 상담은 오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도형상담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 하고자 한다.

(가) 도형상담의 기본 방법

사람은 누구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기질을 그리는 도형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그리는 도형을 보면 그 사람의 기질을 파악 할 수가 있다. 도형상담은 4가지 도형을 사용한다. 4가지 ○□△S의 도형을 이용하여 아래의 상담지에 자기가 그리고 싶은 공간에 그리는데, 방법은 상담지에 있는 것과 같다. 도형을 가지고 1차 기질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나머지 도형을 가지고 2차 기질과 상태를 파악한다.

도형상담은 복잡하고 미묘한 현대인의 심리와 상담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적절한 상담기법이며, 심리학적 인식과 신학적 이해, 깊은 영성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고난도의 상담기법이다. 심리학적 사람의 이해와 신속 정확한 회복과 상담이 가능한 상담프로그램을 통하여 청년들과의 긴밀한 관계와 돌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⁵⁸⁾

위의 상담기법을 활용하면 청년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청년들의 삶에 대한 돌봄이 가능하고 카운셀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들과 친밀해 질 수 있는 아주 효과가 높은 상담기법이다.

2. 복음선포와 이해

가. 복음으로 선포하라.

복음이라는 것은 주체가 인간이 아니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우리의 전반에 깔려 있는 사상은 언제나 우리의 노력이 수반된 인본주의가 팽배해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김세윤은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다.⁵⁹⁾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아닌 목회자가 예수님이 되고, 그 청년들을 말씀으로 휘두르며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가 다루기 좋은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성도들도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한 부작용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문제의 주인공이 되고, 교회만 오면 성자가 되는 이상한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해오던 ‘제자 훈련’은 과연 무엇인가? 산상수훈이 요약하는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훈련하는가? 다른 모든 좋은 사역의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본질이 왜곡된 체 양적 교회성장의 한 수단으로 전략하지 않았는가?⁶⁰⁾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것을 버려야 한다. 본 연구자가 대전성남교회에서의 사역 초기에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선포가 매우 약하였다. 본 연구자 또한 풀

58) 부록3을 참조하라

59)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8.

60) 김세윤, “산상수훈과 한국교회”, 7.

러 목회학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무지한 사역자였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부터 목회 스타일과 말씀 선포양식을 바꾸게 되었다. 여기서는 본 연구자가 대전성남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 사역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이며 사도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줄여 말할 수 있겠다.⁶¹⁾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창조 혹은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 받게 하고자 하였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 타락한 인간이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그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여 상속자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무한함을 덕 입어 사는 상속자로 살게 되어 그 무한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무한함에 참여하는 자는 더 이상 내적인 결핍에 빠져 죽음의 현상들(고난, 질병, 죽음, 재해 등)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사단의 종 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 전권을 맡기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 즉 하나님께 전권을 맡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무한함에 참여하는 하나님적 삶을 영유하는 것을 영생이라 한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으로 다윗 왕조의 재건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참 인간다워지는(하나님의 무한함을 덕 입는 자, 상속자) 하나님적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할 수 있다.

복음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정의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러한 복음의 인식이 전제 되지 않은 잘못된 복음, 즉 유사 복음이 한국교회를 명들게 했고, 맘몬 우상에 빠지게 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본 연구자 또한 전에 강단에서 선포하던 말씀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맘몬이즘에 물든 유사복음을 전했는지 모른다. 그것을 회개한다. 그러나 풀러 목회학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자의 인생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소중한 사건이 비로소 복음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나의 메시지는 언제나

61)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7.

나 복음이다. 어떤 사역이든지 성경공부, 심방, 상담, 설교든지 간에 복음이 묻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다른 수 많은 성경공부교재가 있음에도 먼저 복음을 가르쳐야 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김세윤박사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가지고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의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아니면 왜곡되어 사람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다운 자유함과 구원의 소망과 실재를 누리지 못하며,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 및 윤리를 정립하지 못하여 결국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기독교의 이미지만 세상 가운데 심어주게 되어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를 오해하게 만들고, 구원을 오해하게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적 삶을 살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참다운 복음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복음적 삶을 살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 훈련을 하고 있다.

나. 복음기초 훈련

바른 신앙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른 삶은 바른 배움에서 오는 이해를 통하여 실천되어진다. 따라서 대전성남교회는 복음기초 훈련을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1, 2단계에서는 풀러신학교 김세윤 교수의 책 두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하여 공부하며, 훈련하고 있다. 1단계에 사용되어지는 교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통하여 8주간 진행한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2단계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통하여 24주간의 과정으로 복음기초 훈련을 진행한다.

이러한 복음기초 훈련은 새로운 청년이 등록하게 되면 7주간의 정착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이 끝나면 시작된다.

대전성남교회청년대학부의 청년신앙성숙과 양육을 위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새가족 섬김(7주)-복음기초 훈련 I (8주)-복음기초 훈련 II (24주)-리더제자훈련 (30주)-리더 수련회의 순서로 진행된다. 아래의 두가지 책은 장년 성도들에게도 읽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권장하고 있다. 청년대학부의 복음의 이해를 위한 노력이 온 교

회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회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앙을 도모하여 삶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져가고 있다.

다. 개인 성경공부(personal bible study) 시간을 가지게 하라.

개인 성경공부는 성경구절과 씨름하며 그 과정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스며들어 어떠한 이단의 속임수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삶의 견고한 기둥이 될 수 있다. 또한 하워드 헨드릭스와 윌리엄 헨드릭스는 그의 책에서 성경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⁶²⁾ 첫째, 성경공부는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성경공부는 영적 성숙에 필수적이다. 셋째, 성경공부는 효과적인 영적생활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인 성경공부가 대전성남교회 청년대학부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청년대학부의 중심활동으로 자리 잡는다면 큐티와 더불어 개인 영성훈련의 중요한 기초를 마련해 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종류와 방법들을 간단하게 제시하여 개인 성경공부의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1) 개인 성경공부(personal bible study)의 종류와 장점

(가) 종류

- 성경 책별 연구: 성경 6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성경의 흐름과 역사적 배경을 따라 본문을 읽고, 이해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 목상연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차례대로, 또한 어느 한 책을 선정하여 처음부터 책의 끝까지를 가지고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다른 여러 시각에서 관찰하여 한 메시지를 깊이 마음에 새긴다.

- 단어연구: 성경전체를 가지고 처음부터 계시록 까지를 차례로 넘어가면서 성경본문에 나오는 주요 단어들 중에서 핵심이 될 만한 단어를 선택하여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다.

- 역사연구: 성경의 사건에 대해서 시대 상황과 전반적인 배경을 자료나 사진을 통해서 찾아보고 살펴보며 공부한다.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기록한 역사현장을 비교하

62) Howard Hendricks & William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 정현 옮김,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6), 34.

여 공부하는 것도 좋다.

- 인물연구: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인물의 삶을 통하여 연구한다.

- 주제별 연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연구한다. 예를 들면 성품, 섬김, 사랑, 성령, 희생, 고난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집중하여 공부한다.

(나) 장점

개인성경공부는 개인의 영성은 물론 교회공동체의 성숙과 살아있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기도와 더불어 개인의 영적성장과 경건생활을 풍성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이 중간에 포기되어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성경공부를 위하여 어떤 성경을 선택할 것인가?⁶³⁾

- 글씨크기: 가능하면 큰 글씨체로 인쇄되어서 읽기 쉽고, 표시하기 좋은 성경을 준비하라.

- 여백이 많은 성경책: 이러한 성경책은 관찰한 내용들과 갖가지 통찰력들을 적어넣기에 용이하므로 성경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

- 설명이 없는 성경책: 말씀을 공부할때는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말씀을 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될 수 있으면 성경 본문만을 가지고 한다.

- 단락의 소제목이 없는 성경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관주가 있는 것으로 한다.

- 종이의 질과 재질이 튼튼한 것이 좋다: 이리 저리 많이 찾아보고, 들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 성구사전이 부록으로 있는 책이 좋다.

- 지도: 지도가 있는 성경책은 성경속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찾아보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63) Howard Hendricks & William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 52.

(3) 성경공부의 한계와 대안

(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할 때

귀납적 또는 주제별 성경연구만 하게 되면 한 구절이나 한 주제를 자세히 공부하고 연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과 내용전개에 대한 흐름과 의도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신약성경 개관 학교를 열거나, 성경 통독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

대전성남교회 청년부는 1년에 한 차례씩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1주일 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통독 할 수 있는 집중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나)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럴 때는 말씀 목상한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대일 양육을 통한 성경지도,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소그룹 형성, 또는 말씀 사경회를 주관하여 자의적 성경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돕는다. 대전성남교회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두란노교회,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보급하고 있는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하여 일대일 사역을 청년담당 목회자들이 진행하고 있다.

(다) 성경이 어려워지고 지겨워질 때

지도자가 정기적으로 성경 본문을 선택해서 암송하게 하면서 제시한 본문을 연구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또는 이야기 성경, 현대인 성경등 쉽게 우리말로 써있는 성경책을 통하여 먼저 이해한 후 성경본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방법도 많은 도움이 된다.

라. 예배에 승리하라.

대전성남교회 청년부는 7년 전에만 하더라도 예배 활성화가 되지 못했었다. 청년부를 전담할 만한 전문 교역자가 없었으며, 리더그룹도 없었다. 따라서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청년은 교회사역에 도우미 정도로 이해하여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그들만의 동질성이 느껴지고, 어우러지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청년대학부의 급격한 부흥의 정체와 교회에서 청년들의 이탈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비로소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드러진 예배가 청년들의 문화와 성향에 맞는 열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청년대학부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살아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 공급되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청년들이 바른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남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이는 성도의 가장 큰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다. 예배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다.⁶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영광을 얻으시며 그 뜻을 보여주신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심을 꽃피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다.⁶⁵⁾

(2)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⁶⁶⁾

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장소나 예전도 중요하지만 청년예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만남을 강조하며, 예배자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중요시 여긴다. 즉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하다.⁶⁷⁾ 예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⁶⁸⁾ 즉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함양한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됨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구원의 은

64) Robert E. Webber, *살아있는 예배*, 황인걸옮김 (경북: 예본출판사, 2006) 63.

65) 황승룡, *예배란 무엇인가?* 66.

66) Ibid., 86.

67) Ibid.

68) 김상권, *청년실종 공동체성으로 공약하라*, 104.에서 재인용.

혜를 경험한자는 삶의 방식으로 예배해야 한다.⁶⁹⁾

(3) 대전성남교회 청년 예배의 특징

현 시대의 청년 예배는 찬양의 비중이 커지고, 신체와 감성에 있어서 역동적인 참여의 기회가 많아졌다. 각종 음향기기 및 현대식 악기들의 사용과 대중적인 리듬을 도입함으로써 청년들이 쉽게 공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최근에 와서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드라마나 춤, 멀티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청각적으로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신시대인 미디어 세대들을 수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청년들의 문화와 시대에 맞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열린예배 형태의 예배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은 전통적인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되는 세례와 성만찬의 감격이다. 따라서 대전성남교회는 1년에 4차례 세례는 담임목사의 집례로, 성찬은 청년담당 목사의 집례로 예전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성남교회는 어른 예배가 2시에 이루어진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들은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의 찬양인도와 악기연주를 통한 예배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일종의 청년들을 양육자가 아닌 사역자로 인식하여 그들만의 시간과 공간을 배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청년성장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벽이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은 주일 오후 2시에 장년들과 분리되어 청년대학부 예배가 젊은이 예배로 드러지고 있다.

(가) 예배셀을 통하여 청년대학부 예배를 디자인한다.

소그룹 중에 예배셀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끊임없이 청년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예배의 도우미내지, 방관자, 참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도록 예배 기획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특별예배, 절기예배, 연합예배등을 기획한다. 예배 기획팀 즉 예배셀은 셀활동을 통하여 매주 한번씩 만나서 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협의 하지만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예배셀과 협조해야 할 영상, 음향팀과도 모임을 갖고 사역내용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자칫 각 부서만을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

69) Robert E. Webber, *살아있는 예배*, 241.

고 연합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 찬양팀이 운영되고 있다.

헤븐보이스 라는 찬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찬양사역자와 예배인도자를 세워서 역동적이고, 성령의 감동과 어우러지는 젊은이만의 예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찬양과 예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배 인도자와 찬양인도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예배자 학교와 찬양인도자 학교에 보내어 집중 훈련을 통하여 리더들을 훈련하여 신령과 진정한 젊은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더 1명, 싱어팀 8명, 악기팀 5명(신디, 기타, 베이스, 드럼, 일렉기타)으로 구성되어 있다. 찬양콘티를 비롯한 찬양전반에 관한 부분을 책임진다. 여기에는 워십팀도 포함되어 찬양과 워십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청년지체들로 하여금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다) 예배 안내팀

예배를 위하여 방문하는 청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자리로 안내하고, 예배시 드리는 헌금 관장 등 예배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도와주며, 부족한 부분들을 건의하고 보충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여 하나님께 감동과 감격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다. 대전성남교회 청년대학부 안내팀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 입구에 2명, 현관에 2명, 청년부 예배실 입구에 2명, 예배당 통로에 4명을 배치하여 예배를 돕는다.

(라) 영상 및 음향팀

젊은이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미디어의 활용이다. 오늘날 이 시대는 멀티미디어의 시대라고 부른다. 문자와 음성위주의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지나가고 뉴미디어가 지배하는 멀티미디어의 시대가 온 것이다.⁷⁰⁾ 이미 젊은이들의 정신세계는 영화, 게임, 드라마, 스마트폰 등이 점령하고 있다. 즉 자신들이 보았던 것이 이미 자신들의 삶과 행동을 결정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성남교회 젊은이 예배에는

70)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2001), 136-137.

이 영상의 활용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매주 드러지는 예배 가운데 영상 편집 팀과 카메라팀을 구분하여 영상 편집팀은 예배의 광고와 영화 예배, 주제 설교에 맞는 영상등을 편집하여 예배 가운데 활용하고 있고, 카메라 팀은 예배가운데 생생한 예배 현장을 보여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영상 사역팀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 성남교회는 수준 높은 영상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예배 가운데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대전성남교회 청년대학부 50명을 상대로 간단한 설문을 실시한 내용이다. <표 11> 은 청년대학부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청년대학부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열정적인 예배	소그룹모임	행사	기타
46%	42%	6%	6%

응답결과를 담고 있는 <표 11> 이 보여 주듯이, 청년사역의 부흥을 위해서는 열정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청년들 대부분이 예배가 그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 한 대답이었다. 분명 예배를 강화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다.

마. 성경을 통독하라.

1년에 1회 집중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수련회 시작 전, 4박 5일 동안 성경 66권 전체를 통독한다. 성경을 통독하다가 힘들 시간이 되면(1시간 정도 지난 시점) 통독을 중지하고 잠시 통독한 부분에 대한 성경해설이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이 시간을 통해서 긴장을 풀고 성경 통독이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해와 함께 이루어지므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다음은 성경통독 모임에 관한 안내문이다.

- 1) 장소: 청년부 예배실
- 2) 기간: 7월 9일(월)~13일(금) - 2012년 기준
- 3) 시간: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 까지
- 4) 대상: 성경통독을 사모하며, 원하는 청년 누구나(선착순 70명)
- 5) 인도자: 청년 전담사역 목회자가 인도한다.
- 6) 방법: 성경통독 플레이어를 사용한다. 1시간 30분 진행, 10분 휴식의 순서로 진행한다.
- 7) 준비물: 성경책(열린노트성경을 권장한다), 필기도구, 형광펜, 물병, 간단한 모포,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교회에서 숙식하는 청년들) 말씀에 대한 사모함 외 기타 등등
- 8) 신청기간: 6월 17일(일)~30일(토), 숙식여부 파악.
- 9) 참가비: 10,000원

바. 복음을 봉사와 섬김으로 연결하라.

복음의 열매들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연약하고 소외된 세상을 향한 섬김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이다. 청년대학부나 선교단체에서 성경적 지식을 열심히 배워서 머리는 커지는데, 말씀을 배운 이후에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사랑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없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훈련되어진 청년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어두움이 있는 곳을 밝히는 거룩한 씨름을 하게하는 섬김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김세윤박사는 그의 강의에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선교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착한 행실로 온 세상이 보게 하라'⁷¹⁾고 말하고 있다.

먼저 소금노릇해라. 착한 행실로 사랑을 확대, 정의 확대하고, 정직을 확대하면 세상이 빛 가운데로 들어온다. 제자훈련이 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다. 교회 목

71) 김세윤, *하나님 나라, 현대적조명과 적용* (강의안; 학원복음화 협의회 주관 세미나), 8.

사 충성과 만들면 안된다. 사람 끌어다가 왕국건설하면 안된다.

대전성남교회 청년부는 봉사셀을 통하여 섬김의 계획들을 세우고, 갖가지 섬김의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2달에 한 번씩 장애우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우들을 섬기고,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대전역 쪽방촌을 찾아 같이 저녁 먹기 운동을 통하여 외로움과 소외감에 빠져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

3. 공동체성(소그룹,셀)을 활성화하라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은 ‘청년 실종’의 시대라고 한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공동체성의 약화를 들 수 있다. 그렇게 약화된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활성화 하지 않으면 ‘청년실종’ 현실을 극복 할 수 없다. 청년실종 현상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오로지 물량주의적 사역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무조건 부흥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뜻이라고 하면서 성공지향적인 사역 태도와 오로지 성공에만 목적을 둔 결과들이다. 청년실종 사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청년실종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공동체성의 함양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소그룹 사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셀그룹사역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그룹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셀로 전환하여 명명한다.

가. 대전성남교회 청년부 셀 모임 기본 수칙

(1) 셀 모임 운영 수칙

교회성장의 원동력은 인체가 세포분열에 의해 성장하듯 교회 조직의 기본 단위인 셀 모임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기존 청년모임을 셀(cell)체제로 전환한다.

(가) 셀의 인원구성

기존의 소그룹을 셀로 통일하고, 리더를 셀 리더(Cell Leader: CL)로 명칭한다. 셀은 셀 리더를 포함하여 5-15명의 셀원으로 구성된 "교회속의 작은교회(ecclesiola

in ecclesia)"⁷²⁾ 15명 이상이 되면 2개의 셀로 분열 번식한다. 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하는 이유는 참여하는 성원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충분히 그리고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나) 셀의 역할 구성

셀 리더(Cell Leader)는 셀을 돌보며 예비목자를 키운다. 예비리더(Intern)는 목자의 역할을 배우며 분가 시 셀 리더로서 섬길 준비를 한다. 서기는 셀 보고서 등 자료를 기록,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회계는 셀의 헌금을 관리한다. 지역목자(Zone supervisor)는 여러 셀 모임을 부흥시키고 분가한 리더로서 3~5명의 리더들을 돕고 양육하는 역할을 한다.

(2) 셀의 생명 주기 5단계

셀은 생명 공동체로서 성장과 성숙의 주기를 가진다. 다음은 셀의 생명 주기를 나타내는 다섯 단계이다.

(가) 탐구 단계(서로 친해지는 시기)

새로운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번 이상의 만남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모임을 가질 때는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나) 과도기 단계(갈등의 시기)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가치관의 충돌이 생긴다. 그밖에 성격이나 기질의 차이로 갈등이 표면화된다. 그러면서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된다. 리더는 모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성공적인 셀 생활을 위해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셀원들이 갈등을 깊이 나눌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인도해야 한다.

72) Joel Comiskey,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5), 25.

(다) 공동체 단계

과도기 단계를 지나면서 셀 참여의 헌신도 깊어지고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관계의 풍성함도 더해진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이로 인해 외부를 향해 문을 닫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목자는 셀원들의 관계가 두터워졌다고 생각되면 즉시 셀 모임 밖의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인도해야 한다.

(라) 확장 단계

이 단계는 셀의 구성원들이 자신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셀에서 겪었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뿐만 아니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한 만큼 전도에 있어서 노력한 결과들을 수확하는 때이기도 하다.

(마) 번식(분가) 단계

일반적으로 셀의 유지 기간은 6~9개월 정도가 되어야 한다. 1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도 번식하지 못하는 셀은 일반적으로 침체되고 생명력이나 활력을 잃게 된다. 셀원들은 시작할 때부터 셀이 일정 기간 이내에 번식(분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번식을 통한 나눔은 축하의 시간이다.

(3) 셀 모임의 5W⁷³⁾

(가) 환영 인사(마음 문 열기: Welcome)

환영 인사에는 '분위기 조성'시간이 있다. 이것은 모임을 시작할 때 서먹서먹한 관계를 녹이고 명랑하게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을 열고 친근한 관계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환영 인사는 새로운 사람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전체 그룹에서 자신을 소개하게 한다. 만일 셀을 이제 막 형성했다면 환영 인사 시간을 처음 몇 차례는 30분 정도로 하고, 차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하는 것이 좋다.

73) Lawrence Khong, *신사도적 셀교회*. 최봉실 옮김 (서울: 한국강해설교 학교 출판부, 2004), 86.

(나) 경배와 찬양(Worship)

찬양은 셀 모임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찬양을 시작하면, 주님께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찬양은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부르는 몇 곡의 노래가 아니다. 오히려 찬양 시간은 우리 사역을 주님께 표현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모든 모임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거 되기를 기대 한다. 셀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해 드리면서 30분가량의 시간을 할애한다.

(다) 말씀의 나눔(Word)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누는 단계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셀 구성원이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일방적인 말씀의 선포라기보다 함께 더 깊은 나눔을 가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셀 모임은 성경 말씀에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서로 축복하고 시간을 갖는다.

(라) 목회적 돌봄(Works) 및 복음 전파(Witness)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섬김이 절정에 달하면 셀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이 모임을 '실천 활동'이라고 한다. 이 시간에는 셀 구성원의 삶에 대한 진지한 돌봄과 섬김을 갖는 시간이다. 그리고 삶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각 셀 회원들은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불신자의 이름을 기억한다. 셀은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필요를 확신시키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한다. 이 실천 활동 단계는 구성원들에게 전도하는 과정과 홀로 기도하는 과정을 알리며,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가가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5) 셀 모임 예시(A)

(가) 환영, 마음 문 열기(Welcome)

다른 지체 세워주기: 한 사람씩 돌아가며 그 사람의 장점을 열매를 예로 들어 격려한다.

예) 000는 밤과 같은 사람입니다. (밤의 특징 설명) 왜냐하면 처음엔 날카로워

보이고 경직되어 보였지만 사귄수록 구수하고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찬양을 통한 경배(Worship)

주제: 열매 - 예수 사랑하심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찬송가와 복음성가를 함께 사용)

(다) 말씀 나누기(Word)

말씀: 역대하 3:1-2, 마태복음3:8-12

① 본문 읽기: 역대하 3:1-2, 마태복음 3:8-12 본문을 읽고 느낀 점, 혹은 이번 주 설교를 통해 내가 받은 도전이 무엇입니까?

② 많은 영성 훈련가들은 종종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묵상하고 그 죽음의 순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 언제쯤? _____

▶ 어떻게? _____

▶ 조사(혹은 비문)? 「OOO 는 _____ 한 사람이었노라」

▶ 내가 천국에서 거둔 열매는(면류관)? _____

▶ 당신이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될 이유 2~3가지가 무엇입니까?

③ 교회는 천국의 타작마당입니다. 우리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천국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당신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당신이 거둔 열매가 결정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당신의 알곡과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알곡(섬김의 열매)은? _____

가라지(없애고 고쳐야 할 점)? _____

쭉정이? _____

(라) 좋은 소식 알리기(Witness)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특별히 그동안 품었던 VIP(태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각자 금년 내 맺게 될 VIP 한사람을 소

개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 ▶ 나의 VIP 한 사람 _____
-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_____

(마)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Work)

금년 한 해의 나의 감사 제목 세 가지 적기

- ▶ 서로 발표하고 함께 감사기도를 드린다.
- ▶ 아픈(영적, 정신적, 육체적, 관계적,,,)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치유기도를 드린다.

(6) 셀 모임 예시(B) - 운영 실제

성숙되고 의미 있는 셀 모임을 위해서는 셀 리더의 모임 이전, 모임 당일, 모임 이후 관리를 구분한 세심한 계획과 준비와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셀 사역자로서의 활동 내용과 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모임 장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일찍 와서 준비한다.(셀 원들이 참석하기 용이한 장소, 교회당에서의 모임 금지, 희망 가정 중심)

(나) 축제 분위기, 사랑의 만남 공동체로 이끌어야 한다.(항상 웃을 수 있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부정적인 말은 절대 금물)

(다) 의도적으로 자리 배정에 힘을 써야 한다.(새 셀 원, 연약한 셀 원에게 관계 형성, 혹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라) 친근한 분위기를 위하여 지난 한 주간의 안부를 묻는다.(칭찬과 인정, 감사할 일, 기억나는 일, 지난 주 말씀 등으로 ice break를 잘 준비한다)

(마)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시작하여 정확하게 마친다. (보통 셀 모임 시간은 1시간 30분 전후가 적당하다)

(바) 교재에 따라 순서를 진행한다.(여는 마당, 말씀 마당, 나눔 마당, 기도 마당,

실천 마당 순으로 진행한다)

(사) 여는 마당에서 지난 주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교재에 나타난 문제 풀이를 한다.(여는 마당은 찬송가를 포함하여 20분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

(아) 말씀 마당은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리한다.(약 15분 간 성경 본문과 말씀 마당 본문을 읽고 요약 정리한다)

(자) 나눔 마당은 셀 모임의 하이라이트이다. 모든 셀 원이 참여하도록 한다.(나눔 마당에 있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도록 목자가 영적 분위기를 솔선수범하여 잘 이끌어야 한다)

(차) 기도 마당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 기도, 짝 기도, 중보의 기도 등으로 진행한다.(기도 제목에는 반드시 셀 교회의 비전, 목회를 위한 기도, 개인 중보의 기도, 전도 대상자 환자 등을 위하여 기도한다)

(카) 실천 마당은 지난 주 실천 마당도 점검하고, 이번 주 실천할 계획들을 세워 나눈다. (실천 가능한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함께 나눈다)

(타) 교제 마당은 이미 나눔 말씀 교제와 기도 교제의 분위기 가운데 음식, 다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남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TV드라마 이야기보다 셀 비전, 전도전략, 말씀 나눔 등이 되어야 한다)

(파) 헤어질 때 다음 만날 장소와 시간. 주중에 할 일을 주지시키고 역할 분담을 한다.(시간을 잘 지키고 차량 도움이 필요한 사람, 새 셀 원에 대한 관심을 표한다)

나. 대전 성남교회 셀 운영의 실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다.⁷⁴⁾ 건강한 모임을 위하여 대전성남교회 청년부의 셀은 전체 8개 셀로 나눈다. 대전성남교회의 셀 나눔의 특징은 지역, 학교, 직장, 또래그룹 등으로 나누는 기존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실질적인 청년 사역과 어우러지는 역동성을 강화하여 형식적인 셀 모임을 탈피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셀의 나눔은 비록 작은 단위의 셀이지만 셀에서 청년부의 한 조직과 프로그램과 제반 운영을 주관하는 권위와 책임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청년들의 셀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셀당 인원은 10명 내외 이

74) 송창근, *셀경험 과정* (서울: 큰숲 출판사, 2005), 38.

지만 인원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셀을 2개씩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달에 평균 4주를 셀모임을 하고 있는데, 3주는 셀모임을 통하여 셀 모임 기본 수칙을 따라 셀 모임을 갖고, 나머지 한 주는 각 셀에게 부여된 8가지의 임무를 위하여 토론하고 계획하는 셀 모임을 갖는다.

(1) 봉사셀 -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계획

봉사셀에서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웃과 지역섬기를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전반을 관장하여 청년부가 유기적으로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몸소 예수님의 섬김사역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섬김과 봉사사역은 다음과 같다.

(가)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교회 주변 아파트 주변 쓰레기 줍기

매 주일 마다 점심식사 후에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그 그룹으로 16개의 조가 구성되어 있다. 한조에 4명씩 한 주에 4개조, 16명이 활동을 한다. 한 조가 한달에 한 번 꼴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한달이면 64명의 청년들이 지역 청결을 위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가까운 대전역 쪽방촌에 2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저녁을 해서 같이 저녁 먹기 운동을 통하여 외롭고 소외된 독거노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달해 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 지역을 위한 교회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나) 지역공부방 교사지원 활동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교회 주변에 있는 3개의 사설 공부방에 나가서 무료 교사로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청년부가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인연으로 몇 년이 지난 후에 대전성남교회 청년부에 등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현재 6년째 이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은 계속 될 것이다.

(2) 선교셀 - 전도를 포함한 단기선교 주관 및 선교지 선정

선교셀에서는 대전성남교회 청년부가 해야 할 전도와 선교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구성하여 각자의 은사대로 청년들을 배치하고 운영하여 청년들의 신앙 열정을 전도와 선교에 접목시키고 있다.

(가) 셀에서의 전도(오이코스 관계중심전도)

대전성남교회의 청년부 전도 방법은 오이코스 관계전도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모든 전도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각 셀로 초청한다. 셀에서의 오이코스 관계 전도를 위한 중심 세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중심의 복음 전도이다. 신자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대일 관계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공동체 복음 전도는 그 이상을 추구한다. 신자들 집단, 혹은 모든 셀이 함께 불신자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권능과 사랑을 가지고 셀이 그 불신자를 에워싸는 것이다. 셀은 불신자들 손으로 만지는 방법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진실하게 증명한다. 셀 그룹은 불신자가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전이라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

개인적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복음 전도는 한 차원 더 높은 영적 권능이 있다. 왜냐하면 그 그룹이 불신자를 위해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개인이 아니라 다 함께 다가가기 때문이다(마18:19~20). 공동체 복음 전도에는 각기 다른 은사와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게다가 공동체로 나가면 일대일로 전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효과적이다. 스포츠 그룹이나 또래집단 문화 속에서 실천한다.

둘째, 관계 혹은 '오이코스' 중심의 복음 전도에 전념한다. 오이코스(oikos)라는 말은 '집'(house)과 그 집 안에 거주하는 '가족'(extended family)을 뜻하는 헬라어인데, 오이코스 전도에서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가족, 고용인 방문객은 물론 친지, 친구, 이웃, 직장 동료, 클럽 회원 등까지를 포괄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한다. 한 사람이 주님께 마음을 열면 그는 자신의 전 가족에게 복음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가족'을 말할 때 직계 이상의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오히려 '오

이코스'는 우리 삶에서 맺고 있는 관계망을 지칭한다. 그래서 우리의 오이코스는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형제, 친척과 이웃, 동료, 운동 파트너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셀의 모든 회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오이코스 구성원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다음 활동한다.

셋째, 봉사 중심의 복음전도이다. 오이코스 복음 전도는 복음을 나누기 위해 불신자의 마음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게 하는데 기여한다. 오이코스 전도훈련을 통하여 신앙인의 체질이 자기중심적 삶에서 타인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총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종합적 전도 프로그램이다.⁷⁵⁾ 그러나 셀이 공동체 복음 전도로 움직일 때는 오이코스 관계를 통해 문을 열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는 불신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봉사 중심의 복음 전도를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의 결정권이 발휘되는 중심인 마음을 빠르게 감화시킬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즉, 헌신할 준비나 심지어 믿을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백성들이 아무 관계도 아닌 상태에서 친절 행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 및 교회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전도법으로서 봉사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청년 전도의 핵심은 개인이 전도하는 차원에서 공동체가 함께 전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서 접촉점을 찾고 불신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중심의 전도, 관계 중심의 전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 선교지 선정 및 단기선교 전반을 계획한다.

대전성남교회는 교회의 역점 선교사역으로 선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1년에 교회 예산의 10퍼센트에 가까운 선교비를 국내 약 20개교회, 해외 3곳에 보내어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을 돕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아시아 복음신학교를 설립하여 현재 선교사를 파송하여 운영하며 현지인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청년부는 이러한 교회 선교팀과의 유기적 협력사역을 통하여 선교헌금을 작성하여 보내고, 선교지를 청년들이 탐방할 수 있도록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청년들이 여름방학과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그동안 일본, 필리핀, 카자흐스탄, 중

75) 김선일, *문화와 전도*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195.

국 등지의 선교지를 탐방하여 선교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또한 선교지 탐방을 통하여 선교의 꿈을 키우고 있으며, 앞으로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선교사로 훈련되어지고 사역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단기 선교 팀은 선교지를 탐방한 후에는 탐장 일정을 보고 하는 시간을 갖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른 청년들에게도 선교의 열정을 심어주며, 동기부여를 이루고 있다.

(다) 택시타기 운동

대전성남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승용차는 집에 두고 택시타고 교회 오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의 취지는 어려움에 처한 택시 업계의 고통을 교회가 함께 나누고, 교회가 택시업계에 힘을 주면서 교회를 홍보하고 대전시내 전체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의도이다.

교회 정문까지 택시가 도착하면 청년부 선교셀원들과 교회 봉사자들이 연합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음료를 택시기사들에게 제공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라는 말을 건네고 손을 흔들어 감사를 표하고 거스름돈은 받지 않음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행복을 전달해 준다.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대전시내에 대전성남교회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좋은 홍보 효과와 전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역은 청년부 선교셀과 교회가 연합으로 하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사역이 되고 있다.

(3) 예배셀 - 예배 디자인 및 기획

예배셀에서는 청년부 예배 전체를 기획하고 디자인 한다.

예배 콘티를 제작하여 정형화되고 형식화 되어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쉬운 청년부 예배를 여러 가지로 디자인한다. 드라마 예배, 음악예배, 문화 예배, 절기예배, 이슈예배(특별한 사회적, 교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패러디하여 드리며, 사회 속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 연극예배 등 다양한 예배 형태를 기획하고 디자인 한다.

또한 1년 동안 청년부가 해 나가야 할 예배와 관계된 사업 전반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담당 목회자와 협의 한 후 실행해 나간다. 다른 교회 청년부와의 교환에

배, 캠퍼스 예배, 인근 교회와의 연합예배 등등을 계획하고 협의하여 진행한다.

(4) 친교셀 - 새가족, 등산, 번개팅, 결혼 예비 학교 추진

(가) 새가족 섬김사역

친교셀에서는 새로 등록하는 청년들이 셀과 청년부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새가족 섬김 사역을 전담한다. 훈련된 새가족 담당 리더들이 새가족 섬김과 안내를 위한 “뿌리내리기” 교재를 가지고 7주에 걸쳐서 새가족을 양육한다.

(나) 아이스브레이크 사역

청년들 상호간에 벽을 허물기 위한, 친목을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개발하고 계획하여 진행한다. 등산, 번개팅, 게임, 공동체 놀이, 레크레이션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화합을 도모한다.

(다) 결혼 예비학교 운영

청년들은 결혼에 민감해 있으나, 교회 청년 같은 경우 의외로 교회와 사역과 직장, 대학의 2중, 3중 구조 속에서 미처 결혼을 생각하거나 준비하지 못하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기독 청년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바르지 못한 세상의 이성교제 문화가 청년들의 순결을 빼앗아가고 성 문란을 야기하는 악 조건 속에서 건전한 이성교제와 결혼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질서와 보호 아래서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을 준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전성남교회 청년부의 결혼 예비학교는 1년에 한차례 가을(9월)에 4주간으로 실시한다.

개강할 때는 담임목사의 강의를 통하여 시작을 하고, 나머지 3주는 청년담당 목회자의 강의로 진행된다.

- ①성경적인 결혼관
- ②결혼전에 남,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 ③결혼 후의 삶과 신앙은 어떻게 계획 할 것인가?
- ④부부 갈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5) 스포츠셀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그룹을 만들어 청년부 전체와 셀별 스포츠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멤버로는 자원하는 모든 청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에서 스포츠학과를 전공하는 청년들을 리더로 세워 셀 활동의 전문성을 기한다. 스포츠셀에서는 인근교회와의 체육대회 계획 및 주관, 1년에 한차례씩 교회에서 실시하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청년부 스포츠셀에서 주관한다. 볼링, 테니스, 탁구, 수영, 배드민턴, 축구 등을 계절과 상황에 따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통하여 단기 레슨도 병행해준다. 청년과 젊은 집사들로 함께 구성된 주향기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주향기 축구단은 매주일 오후 예배 후 정기적으로 이웃교회와의 경기, 청년과 교회팀, 교회주변 조기축구회와의 경기를 통하여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교회를 홍보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들을 전도하는 좋은 선교의 장으로 삼고 있다. 회원은 80여명 정도 구성되어 있다.

(6) 미디어셀 - 예배 영상 기획등

미디어셀에서는 청년부 홍보, 교회 홍보, 수련회, 행사 등의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상영하며, 각종 행사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여기에는 카메라, 동영상 편집, 영상제작 등, 관계된 내용들을 대학 동아리나 클럽에서 활동하는 준전문가들을 통하여 제작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며, 제작 실습을 병행하여 미디어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호기심을 활용하여 셀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한다. 또한 절기시에는 예배팀과 연합하여 예배에 필요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예배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미디어셀의 셀장은 한동대에서 영화감독 수업을 받고 있는 청년이 담당하고 있다.

(7) 문화셀 - 음악회 주관 등

대전성남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담임목사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음악회 등 심지어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합창제등에 참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중소형교회와의 찬양대 교환 예배를 1년에 한 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수시로 음악회를 개최하여 음악을 통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영향을 청년부가 자연스럽게 받고 있어서 교회와 연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문화셀에서는 이러한 음악을 통한 선교와 청년 연합에 모든 행사계획을 교회와 협의하여 기획하고 진행한다.

또한 대학 캠퍼스에서의 스킷드라마 음악회 공연등을 통하여 캠퍼스 전도와 선교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각종 연극, 영화감상 후에 나눔을 갖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청년부 성장과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 특별히 청년대학부는 앞에서 언급한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평균 2시간 30분 정도이다. 청년사역을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 하루에 한 번 전체 청년들에게 말씀 문자를 넣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보내 준 말씀 한 구절이 힘이 나고, 위로가 된다고 답장을 보내고 간증하는 청년들도 있다. 가끔은 성경퀴즈를 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답을 보내오면 선물을 준다. 또한 1주일에 한 구절씩 성경 암송 구절을 전송하여 외우도록 한다. 셀장과 리더그룹들은 성경암송이 필수다. 나머지 청년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준 암송구절을 가지고 암송대회를 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8) 큐티셀

(가) 전교인 및 청년들의 큐티 운동의 전개

대전성남교회는 담임목사와 모든 교역자들이 새벽설교를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교재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회 전반에 큐티가 활성화 된 교회이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큐티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큐티를 하면서 변화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므로 전체교인들이 큐티 생활을 체질화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큐티셀에서는 교회와 연합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전문 큐티 강사(두란노 큐티 운동본부, 매일 성경 큐티 운동본부 등)를 초청하여 올바른 큐티 방법을 교육하고, 수준 높은 묵상 훈련과 삶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대전성남교회 청년부는 성경공부반을 모집하듯이 QT반을 모집하여 한 기수별로

6개월 동안 훈련에 들어간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 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6개월의 QT훈련을 마치면 가수별로 한주에 한 번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 나눔을 가진다. 인도자는 기수별로 조장을 만들어 조장이 나눔반을 인도하고 한 달에 한 번은 QT 지도 교역자가 함께 참석한다.

(나) QT의 실제

QT의 순서는 상황에 따라 혹은 교회마다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대전성남교회의 청년들의 QT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막1:35)

규칙적인 시간, 대체로 아침이 좋으나 다른 시간을 정해도 상관없다. 장소는 조용하고 정리된 곳,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일정하게 정해진 곳에서 한다.

-2단계: 준비기도와 찬양을 한다.(눅22:42)

QT를 하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과 찬양을 한다.

-3단계: 본문 읽기와 묵상을 한다.(눅23:45)

♣본문읽기: 본문 읽기를 2~3회 정도 천천히 읽은 뒤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에 밑줄을 긋는다.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묵상에 들어간다.

♣묵상하기: 이제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한다.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주님과 대화내용과 묵상을 통한 감동된 내용을 노트의 여백에 기록한다.

-4단계: 적용과 적용기도를 한다.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한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실천 내용들을 기록한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성령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린다.

-5단계: 나눔

QT 나눔은 QT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체들에게 서로 나눈다. 나눌수록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된다.

(다) 청년대학부에서의 QT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청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역자가 큐티를 지도해야 한다. 대전성남교회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수별로 QT반을 모집하여 6개월간 담당 교역자와 함께 훈련에 들어간다. 또한 교회와 협력하여 QT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교회는 끊임없이 QT활성화를 위한 불조성에 나서고 있다.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는 담임목사와 교역자들도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QT교재를 가지고 진행하므로 온 교인들과 청년들이 QT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고 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QT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간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므로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4. 청년사역 리더를 세워라.

가. 제자(리더십)훈련

청년부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와 침체의 현상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요 원인은 부지중에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회변화의 함정에 빠져 더 이상 예수님이 뜻하셨던 대로 효과적인 제자를 양성하지 못했고, 청년들의 대다수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또 그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다.

리더십 제자훈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겨 놓고 가신 마태복음28장 18-20절의 말씀이며, 이에 대한 순종이라 할 수 있다.

제자를 만들라고 명하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하셨다. 그 제자를 만들 대상은

모든 족속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실 말씀이며, 이 이상의 명령도 이 이상의 순종도 없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제자로 성장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없다. 때문에 본 리더십 제자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며, 더욱 건강한 개인의 영적 성장과 교회성장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오랫동안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말씀의 진의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영적 어린아리로 방치하였다. 이것은 교회가 질적인 성장 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변해야 할 때가 되었고 리더십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에서는 자신의 은사대로 섬기며 자신만을 위한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참 신앙인으로 멘토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리더십 제자 훈련은 소그룹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훈련되어진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요 지침인 것이다. 리더십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나 지식적인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리더십 제자 훈련은 청년 개인의 질적인 성장 및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청년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일깨워 주는 가장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리더십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한국교회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건설할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만들어 줄 것이며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대전성남교회 청년부는 아래에 따라 제자훈련을 시행한다.⁷⁶⁾

L.D.T훈련은 특수훈련이며 영적 전쟁이다. 시험이 다가오면 함께 기도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제자훈련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한다.⁷⁷⁾

76) 참조: 제자훈련을 위한 안내는 부록 4를 참조하라.

77) 김덕주, *멘토링 제자훈련* (서울: 아리울, 2006), 10-40.

제 1 부 복음의 기초

A. 하나님과 그리스도

1. 하나님나라의 건국
2. 하나님나라의 반란
3. 하나님나라의 회복(구속)
4. 복음의 내용(약속)

제 2 부 성장하는 제자

A. 제자의 생활

1. 제자의 기도 삶
2. 말씀에 기초한 삶
3. 내적치유
4. 간증
5. 술과 담배
6. 언어생활

B. 제자도

7. 제자의 탁월성
8. 제자의 직업관
9. 제자의 재물관
10. 제자의 시간관리
11. 제자의 가정관
12. 제자의 성품

제 3 부 무장하는 제자

A. 제자의 성품 훈련

1. 성장의 근원인 마음
2. 제자의 순종

3. 정직한 삶
4. 사랑의 실천
5. 제자의 믿음
6. 종의 도

B. 교리적 무장

7. 교회론
8. 예배론
9. 은사론
10. 제자의 성화
11. 성령론
12. 종말론

C. 리더십 무장

1. 리더십(영향력)
2. 준비된 리더가 되라.

나. 리더를 세우기 위한 수련회

리더는 먼저 자신을 경영하는데 탁월해야 한다.⁷⁸⁾ 그래서 재교육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리더의 재교육을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훈련과 더불어 수련회를 통한 집중 훈련과 재충전이 필요하다. 리더들은 청년개별지체에 대한 섬김을 통하여 에너지가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리더들을 위한 양육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리더수련회는 서로가 보다 친밀하게 하나 될 수 있고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하나됨의 동질감을 회복하여 부르심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다시 헌신을 다짐 할 수 있는 형태의 집중식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성남교회 리더수련회는 1박 2일로 운영되고 있다. < 표 12 > 은 리더수련회의 일정표다.

78) 김성진, *리더십의 12가지 기본원리* (성남: 목회컨설팅 연구소, 2007), 12.

〈 표 12 〉 리더 수련회 일정표

시간	첫째날	둘째날
오전	선발대 출발(2시간 전에 출발) 수련회 출발	큐티 아침식사 과거반성과 미래설계 셀편성
오후	수련회 장소로 집결 집정리 저녁식사	점심식사 코이노니아
밤	리더십 세미나 찬양집회 기도와 결단 Life Story 취침	저녁식사 집으로 Go Go

리더수련회는 직장파 학업등의 이유로 보통 한 분기를 시작하는 첫 주 목요일과 금요일을 이용하여 1박 2일로 진행된다.

첫째 날은 리더로서의 자질과 사명감 고취, 성령의 그동안의 격려와 위로, 헌신과 결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찬양과 함께 집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밤늦게 부터는 자신의 삶을 나누는 셀 모임을 통하여 서로를 알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받아들이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진다.

다음 날은 아침 식사를 한 이후부터는 지난 분기를 반성하고 다음 분기에 대한 계획과 설계에 들어간다. 그 다음 오후 식사 후 부터는 수련회 장소를 나와서 리더들과 교역자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저녁을 먹고 모든 리더 수련회 일정을 마치게 된다.

다. 예비리더를 발굴하라.

청년대학부의 현실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리더의 부재이다. 그러나 특별히 최근 들어 활성화 되고 있는 소그룹에 있어서의 훈련되어진 리더는 더욱더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대학부의 담당지도자에게 리더 발굴과 양육은 큰 과제이다. 따라서 청년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그룹 사역 가운데 특히 리더 양육과 선발 부분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1) 리더발굴 전략

청년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리더의 양육에 관한 것이다.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각 그룹을 인도 할 수 있는 재원을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으로 좋은 리더에게 일이 몰리는 경향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더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숨어있는 잠재적 리더의 발굴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잠재적 리더 발굴의 전략을 < 표 13 > 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 표 13 > 잠재적 리더 발굴 전략⁷⁹⁾

단 계	잠재적 리더 발굴 전략
발 굴	4P로 잠재적 리더를 발견하라
비 전	소그룹 사역의 비전을 함께 나누라
역 할	소그룹사역의 역할을 함께 나누라
임 명	소그룹 안에서 인턴 리더로 세우라
훈 련	함께리더 모임과 훈련에 참석하라

잠재적 리더를 발굴하는 전략은 크게 다섯 단계를 걸친다.

첫째는 발굴의 단계로서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리더로 가능성이 있는 지체들을 ‘4P’를 통해 발굴하는 것이다.⁸⁰⁾

‘4P’는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잠재적 리더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곱 가지 판별법에 착안하여 단순화 시킨 것이다. ‘4P’는 Prayer(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Passion(소그룹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 Participation(소그룹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자), Patience(영혼에 대한 인내가 있는 자)인데,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지체가 일단 인턴 리더의 후보에 오른다.

79) 김상권, *청년실종 공동체성으로 공략하라*, 168.

80) 윌로우크릭교회의 잠재적 리더 판별법은 첫째는 소그룹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참여하는 사람, 둘째는 지금의 리더에 도전하는 사람, 셋째, 은사가 눈에 띄는 사람, 넷째, 잠재적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다섯째, 소그룹 사역에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 여섯째,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사람, 일곱째, 영적,정서적, 사회적 자질이 보이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바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리더가 소그룹의 비전을 나눈다. 그래서 소그룹의 목적과 중요성을 공유하게 하고, 그 다음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 다른 지체들을 돌보는 일들을 부탁하여 동역하고, 그 후에 공식적으로 인턴 리더로 임명하게 된다. 일단 인턴 리더로 임명이 되면 가능한 한 리더 모임과 리더 훈련에 함께 참여하면서 다음 분기의 리더로 준비하게 한다.

(2) 예비리더 선발기준⁸¹⁾

● 영적 반응도와 잠재력에 따른 선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는 각 사람의 내면과 배우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영적 진리에 대한 반응을 보셨다. 예비리더를 선별할 때 교역자는 영적 반응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그룹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 그룹의 상황 속에서 회원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영적 반응도와 앞으로 소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잠재력,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 리더의 추천을 적극 활용한 선발

회원 전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역자가 직접 리더를 선발할 수도 있지만 교역자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멤버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 기존 리더의 추천을 통해 리더를 선발하는 것도 좋다. 이 경우 리더의 관찰과 권면, 설득추천이 필요하다.

(3) 공동체의 상황에 따른 리더 선발⁸²⁾

● 지원자가 없는 경우

이때는 교역자가 청년들의 삶에 성숙신하고 동화되는 단계를 가져야 하며, 청년들과 직접 만나서 면담해야 한다. 아니면 리더의 간증이나 리더가 되어 유익한 점을 알려 줌으로써 리더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할 수 있다.

교역자는 의도적으로 리더와 멤버를 차별하여 대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교역자는 우선적으로 리더들과 공동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의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81) 고직한, *청년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서울: 홍성사, 2003), 174-176.

82) Ibid., 176-177.

혹 과거에 타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되도록 처음부터 다시 훈련받게 하여, 소속 공동체의 훈련에 독특함과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게 좋다. 반면 이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방식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소그룹 리더는 교역자가 직접 하는 훈련을 거쳐서 배출된다는 생각을 심어 준다.

● 지원자가 너무 많은 경우

희망자가 너무 많은 경우 예비 제자훈련을 한 달 정도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과제를 많이 내 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서 영적인 가능성을 잘 살핀 뒤 추려야 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기준은 바람직하지 않다. 뽑힌 사람들에게는 선발을 통보하고, 뽑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자 훈련은 소수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역자가 소수만을 편애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 4 절 대전성남교회 청년 사역에 대한 평가

본 절에서는 그동안 본 연구자가 대전성남교회 청년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도한 사역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1. 긍정적인 평가

가. 복음의 이해도에 대한 조사

대전성남교회 청년들 90명을 대상으로 설교를 듣고, 복음적인 여부, 즉 얼마나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구원과 그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였다. < 표 14 >은 복음 이해도와 설교가 복음적인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 표 14 〉 복음 이해도와 설교가 복음적인가?

퍼센트	50%	60%	70%	90%	95%
인원	3명	6명	23명	52명	6명

복음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청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대전성남교회 청년들은 김세윤교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두 책을 통하여 성경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하여 답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대전성남교회 상황에서는 신뢰성이 높은 조사라고 여겨진다. 나름대로 본 연구자가 목회학과정을 통하여 깨달은 복음의 선포가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잘 전달되고 있음을 조사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그들의 삶의 형태와 우선순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 문항에만 답하는 것으로 중복을 피하였다.

이제 다음으로 〈 표 15 〉에 나와 있는 현재 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표 15 〉 현재 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

내용	취업	결혼	가정문제	학교	복음적 삶
인원	38명	9명	2명	2명	39명

복음적 설교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위한 성경공부를 실시한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청년대학부 출석현황

본 연구자는 2008년부터 대전성남교회 사역을 시작하였다. 복음적 설교를 통한 결과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공부의 결과들이 출석 통계로 연결되어 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 표 16 〉은 대전성남교회의 청년대학부 출석 변화 통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 표 16 〉 청년대학부 출석 변화 통계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30명	40명	70명	100명

복음적 설교와 복음의 이해에 대한 성경공부를 통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소그룹을 활성화 하고 리더그룹들을 훈련하여 세우는 사역들이 해가 바뀌면서 출석인원의 증가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4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역의 결과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청년부흥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제거 하는 데는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결과이다. 한 번 잘못 심겨진 나무는 다시 옮겨 심으려면 뿌리를 잘라야 하고, 그 다음 해와 몇 년 간은 열매를 기대 할 수 없는 것처럼, 청년사역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본다. 첫발을 잘 내딛어야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몇 년을 허송세월 할 수 있다. 그래서 청년사역은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청년사역의 활성화의 결과들은 비단 출석율이 높아지고, 인원이 많아지는 부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변화와 긍정적인 결과들에 대하여 몇가지를 열거하고자 한다.

첫째, 복음으로 무장한 청년들은 삶에서 그 결과들이 나타나 지역을 섬기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과 일치될 이루어 지역사회에 꿈과 소망을 주며, 복음을 전해주는 생명의 공급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수고를 통하여 맺게 되는 기쁨의 열매들로 청년들은 한 단계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사역의 보람을 느끼므로, 또 다른 사역을 위해 나아 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 스스로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짜증나고, 자기들의 비전에 방해와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에너지가 되어 일상에서의 삶이 더욱 활기 있고, 생동감이 넘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장년부와 유기적인 연결과 성장을 이룬다. 소그룹사역과 리더를 세우는 사역을 통하여 세워진 청년들이 침체된 교회성장과 부흥의 불씨가 된다는 것이다. 소그룹사역은 많은 사람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 하나된 교회의 특징은 유무상통하고, 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에너지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먼저가 아닌 타자를 위한 사람으로 나타나 교회 구석구석에 섬김과 사랑과 활기가 넘쳐 장년들에게도 큰 도전과

활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부의 성장과 함께 장년부의 출석인원도 5년 전에 비하여 약 20퍼센트 가까이 성장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에도 청년대학부의 부흥과 성장은 교회성장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행복지수다. 5년 전에 비하여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이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표 17〉 나의 현재 행복지수(5년 전에 비교하여 답하라)

정도	더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더 행복하다
인원	3명	10명	77명

근래에 등록된 청년들은 타 교회 다닐 때와 비교하든가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답하게 했고, 등록된지 2년이 채 안되는 청년들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조사에서 제외 하였다.

〈표 17〉의 결과에서도 나타나지만,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이후가 이전보다 청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행복지수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개선되어지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100퍼센트 만족 할 수는 없지만 지난 4년 동안의 대전성남교회 청년부 사역은 매우 효과적이고 긍정적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2. 개선점과 보완점

대전성남교회의 청년부흥과 성장의 활성화된 측면 이면에는 또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

먼저, 교회의 관심이다. 청년사역은 청년담당 목회자가 알아서 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청년사역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청년사역은 협력사역이다. 온 성도와 부서가 하나 되어 청년사역을 고민하고, 나누고, 계획하고 지원 할 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저 청년이 우리교회 청년인지”도 모를 정도로 청년부에 관심이 없다면 그런 부서는 절대 성장 할 수 없다.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한다. 가정에 소속된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를 살

피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어른들이 청년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교제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지, 청년사역 담당목회자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피고,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청년사역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대전성남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미약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는 전담사역자의 부재이다. 본 연구자 또한 청년대학부 뿐만이 아니라, 4개의 부서를 더 맡고 있다. 이런 구조로는 청년대학부 사역에 집중 할 수 없다. 청년사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른 사역이 겹치면 대부분 청년사역을 뒤로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면 청년들을 만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시기를 놓치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청년사역에 대한 힘과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쉽다.

청년사역자가 할 일이 없어서 노는 일이 있어도, 노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일을 맡겨서는 안된다. 청년 사역자는 오로지 청년들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머리와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교회도 그런 부분의 청년사역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년사역자를 믿어주고 배려해야 한다. 마틴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의 책에서 청년부를 “교회속의 작은 교회”⁸³⁾로 표현하였다. 주변 교회들 중 청년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공통된 고민이 바로 전담사역자의 문제이다. 정말로 청년사역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다음세대를 걱정하고 기대한다면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어떤 수학 공식과도 같은 것이다.

병원에도 전문의가 진료를 할 때 환자가 믿고 찾아오는 것처럼, 청년들 또한 자기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전담사역자를 모두가 기대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자기만을 관심을 가져 주고, 자기만을 알아주고,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청년사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들만을 위해서 청년담당사역자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그들에게도 큰 위안이며,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을때의 평안과 같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양육자로 인식하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청년

83) D. Martyn Lloyd-Jones.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 서문강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139.

들이 느끼는 교회 내에서의 비중과 부족한 지원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봉사과 헌신을 강요당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청년들은 스스로가 꾸준히 양육이 필요한 ‘어린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것을 원하고 있다. 교회 청년들이라 함은 대개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이 청년도 있다. 교회는 그들을 일꾼이나 사역자로 보고 곧장 사역의 자리로 내미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 교회는 이들이 꾸준한 돌봄과 양육을 통하여 헌신자와 일꾼으로 설 때 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배려하며,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교육부서중에 한 부서로 취급하여 청년들의 요구가 묵살되어 상처가 생기면 안되는 것이다. 청년들이 교회의 허리고, 미래라면 그에 합당한 배려와 기다림으로 과감하게 투자 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인 것 같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청년사역은 성패는 결국 투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제점들과 개선점들만 보완되어진다면 대전성남교회 청년대학부가 다시 한 번 제 2의 도약과 더 큰 부흥과 성장을 하리라 확신한다.

제 6 장

제언 및 결론

제 1 절 요약 및 정리

본 논문은 침체와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대학부 사역에 대하여 진단하고, 청년대학부의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크게 4가지로 진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대전성남교회 청년대학부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부흥과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동기와 목적을 기술하고, 한국교회의 청년사역의 상황에 대하여 진단하며 본 논문을 어떻게 연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방법과 범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청년사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청년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3장은 청년부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한국 청년들과 교회 청년들에 대한 현황분석을 하였다.

4장은 청년사역에 대하여 귀감이 되며 모델이 될 만한 서울의 강남교회, 안양제일교회, 동안교회의 청년사역을 탐방하여 조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았다.

5장에서는 3장에서 언급한 청년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요인들을 토대로 대전성남교회 청년부가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지역교회의 청년사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목회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6장은 결론으로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지역교회에서 청년부흥과

성장을 이룰 목회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안하였다

제 2 절 청년사역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국 교회 청년대학부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이지만, 그들이 줄어들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비기독교인인 수많은 청년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판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와있다.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원인으로 선교 단체의 참여도가 줄고 있고 교회의 청년대학부 출석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교회의 청년 이탈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초기에는 선교 단체 출석의 감소로 나타났다. 그리고 곧 이어 한국교회의 청년대학부로 그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성장하는 교회들도 수평이동이 대부분이고 선교단체나 교회의 청년대학부나 예외가 없이 청년층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아설 뿐만 아니라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0년간 청년층에 진행되어진 영적 도미노 현상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교회 청년 이탈 현상의 원인이 다양하기에 끊임없이 영적인 체질을 건강하게 세워가야만 청년대학부가 한국교회를 견인하면서 민족복음화와 열방복음화의 침병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청년사역의 현장이 다시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대학부 부흥과 성장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능력 있는 청년사역자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건강한 청년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청년사역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건강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건강한 청년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청년 사역자를 배출해야 하며, 많은 건강한 사역자들이 청년사역에 헌신하도록 교회가 재정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청년사역자는 성경과 청년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가다. 스스로 불안하고 방황하는 갈대 같은 존재가 청년들이다.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속사람의 강건화를 경험하고 날마다 소생하는 영적비밀을 경험하여 성경과 청년의 깊은 만남을 주선해야 하는 것이 청년사역자이다. 이러한 청년사역자가 되도록 교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사역자 본인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하여 청년들의 가능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말씀과 기도로 영적 구심력을 키우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모든 사역의 뼈대는 말씀과 기도다. 기본기를 강화하고 강력하게 할 때 힘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게 된다. 비전은 말씀 속에서 생겨나고, 바른 복음의 이해를 통하여 청년들의 삶 속에서 봉사와 섬김과 하나님의 통치 받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부조리에 연루되고,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한국교회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바른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쉽고 그들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되고, 회복되어질 때 새로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셋째, 예배와 소그룹으로 비상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문제이며, 동시에 삶의 문제이다. 진정한 복음적 삶은 바른 예배에서 나온다. 예배는 그래서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이고, 인간의 생명의 근본이다. 영감 있는 예배는 청년을 살린다. 청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소그룹사역이다. 전인적인 소그룹은 청년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린다. 청년들은 진정한 공동체를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리더그룹을 계속해서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간의 핵심 사역은 12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사역을 제자화 사역⁸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사역의 모습과 같이 먼저 제자를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들을 성령으로 무장하고, 치유 받도록 하여 복음전파의 증인이 되도록 하여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세워나가는 것이 청년사역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여겨진다. 리더의 준비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⁸⁵⁾

청년 목회는 ‘뿌리는 목회’가 맞다. 그래서 교회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소외되었다. 그러나 뿌려진 씨앗이 건강하게 성장 할 때 그들은 교회 속에서 교육과 봉사, 선교와 전도, 예배와 섬김, 그리고 모든 면에서 헌신하게 될 것이다. 청년은 양육되고 훈련되어야 할 원석과 같은 존재이다. 잘 갈고 다듬어야 보석처럼 쓰임 받을 수 있

84) 청년사역세미나 (학원복음화 협의회 주최, 2011) 내용 중.

85) Henry T. Blackaby & Richard Blackaby, *영적리더십*, 75.

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청년을 거친 돌처럼 아무렇게나 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 이상 교회는 보석처럼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도 전에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에 등을 돌리게 해서 안된다.

다행히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인식 가운데,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었고, 청년사역과 부흥을 위하여 아낌 없는 후원과 지원을 결단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한 관심과 열정과 지원이 다시 청년대학부의 건강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이 미력하나마 청년대학부의 부흥과 성장을 갈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소망하며 본 연구를 맺는다.

부록1

[큐티를 하는 방법]

♣ 큐티가 주는 유익

-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나를 발견할 수 있다.
- 큐티를 통하여 내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 큐티를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 - 믿음의 성숙
-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된다.
- 큐티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수 1:8,

시1:3)

- 큐티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 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큐티를 하고 있다.

(가)큐티를 위한 준비- 마음의 준비, 시간, 장소, 성경책(큐티교재), 노트, 필기도구.

(나)기도와 찬양(시 119:18)

감사와 고백과 간구 -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다)성경읽기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5회 읽는다. 말씀을 보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라는 질문을 한다. 본문의 주제와 핵심적인 단어를 노트에 기록한다.

(라)묵상하기(수 1:8, 시 1:1-3)

묵상이란 중얼거린다. 신중히 생각한다. 상상하다. 심사숙고하다. 듣다. 귀를 기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는 것이다. 묵상은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상상하고 깨닫고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 목상의 방법

목상의 안경을 쓰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라.

- ①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성품, 사역)
- ② 내가 버려야 하고 피해야 할 죄와 허물과 잘못은 무엇인가?
- ③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비전)은 무엇인가?
- ④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 ⑤ 내가 본 받아야 할 신앙적 모범(모델)은 무엇인가?
- ⑥ 내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된 진리 또는 신앙적 원리는 무엇인가?
- ⑦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인가?

(마) 적용하기

적용이란 목상의 안경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다. 적용은 개인적(Personal)이어야 하며, 구체적(Practical)으로, 실천 가능한(Possible) 것이어야 한다.

(바) 기록하기

큐티 교재 및 노트에 말씀의 주제, 목상의 내용, 적용할 내용,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다.

(사) 결단의 기도/ 중보의 기도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한다. 가족, 친구, 교회, 선교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전문사역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 훈련은 하루 일과 중에서 나의 신앙을 주의 은혜로 채우고 유지하며, 청년들의 신앙을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회복과 충전의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록2

[영성훈련을 위한 지침]

▣ 영성의 단계⁸⁶⁾

1. 비움의 단계

주님닮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성의 순례는 자신의 것을 온전히 비우는 것으로 출발된다. 우리 안에 가득찬 우리의 것으로는 그 분의 인격과 삶 그리고 가치를 담을 수 없다. 우리 안에 내재된 가치관, 생각, 태도, 그 무엇이든지 새롭고 본질적인 인간 본연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의 것 그것을 비우는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된다.

1) 성경본문 : 빌2:7

2) 비움이란?

-비움은 깨끗이 하는 것이다

-창12:1

-비움은 버리는 것이다.(창22:1-10, 히11:26)

-비움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전적인 포기이다.

-영성회복은 버림과 비움의 단계로부터 시작된다.

-비우는 자는 자기를 여는 자이다.(open mind)

-영성은 버림과 비움의 결과이다. 귀한 그릇에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천한 것을 비워야 한다. 소중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하찮은 것을 비워야 한다.

-비움이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삶 그것은 끊임없는 비움으로 이어진다.

-비우는 만큼 율는 성숙해 진다.

2) 내 마음의 묵상

-자신의 영성은 어떤 모습인가?

86) 김성진, *영성훈련학교 교재* (성남: 목회전략컨설팅 연구소, 2005)

-내가 비워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루중 나의 비움의 시간은 언제인가?

2. 채움의 단계

동양의 명상은 비우는 것, 그것이 한계이다. 우리의 비움은 채우기 위한 비움이다. 채워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 비움과 채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오늘도 비우고 채우는 삶의 연속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

1) 성경본문 : 요1:14, 골1:9

2) 기억해야 할 것들

-사역과 섬김의 출발은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우는 것이다.

-비움의 단계가 없이는 채움의 단계는 없다.

-마울의 채움의 시간들....

-태도를 바꾸는 변화 그것은 채움의 한 방편이다.

하루종일 수고로움으로 사역한 후 다시 채우시기 위하여 산으로 오르신 예수님의 삶 그것은 채움의 시간이었다. 하루의 삶에 필요로 하는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야 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내 마음의 묵상

-채움의 시간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3. 균형을 유지하는 단계

비움과 채움을 유지하는 삶을 사는 자는 삶의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그의 삶이 단순하다. 죽음의 바다라 불리우는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내 보내지 않는다. 그 곳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다.

1) 성경본문 : 사32:2

2) 잠시 생각하는 곳

-나의 영적 삶은 균형이 있는가?

-자동차 정비를 할 때 Wheel balance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영혼의 Wheel balance가 무엇이며, 자동차와 운전의 얼마나 중요한지 조사, 연구해보자.

-영성훈련은 주님처럼 균형잡힌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관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주의 일을 하려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3) 내 마음의 묵상

-나의 영성은 균형잡혀 있는가?

-치우쳐 있다면 이제 세워야 하는 영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Wheel life(수레바퀴의 삶)는 무엇인가?

4. 사역의 단계

자기를 비워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우는 균형잡힌 그리스도인이 된 후 균형적인 삶으로 우리는 보다 더 나아가 「사역」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성숙한 영성으로 인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

1) 성경본문 : 고후2:15-16

2) 잠시 생각하는 곳

-자신의 삶은 자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사역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사역은 성숙한 인격으로 나타나야 한다.

-사역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사역은 직접적인 사역과 간접적인 사역으로 나뉘어 진다.

3) 내 마음의 묵상

-나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내 영향을 통하여 어떤 변화를 창출하였는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 영성의 근원

1. 근원은 예수님이시다. 영성훈련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⁸⁷⁾

1) 성경본문 : 골2:6-7

2) 잠시 생각하는 곳

-우리의 삶의 근원, 물줄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삶속에서의 모든 결단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한국교회의 모습은?

-근원은 근본을 세우는 것이다.

-근원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근원은 예수님이시다.

-근원은 주님의 인격이시다.

-영성은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3) 내 마음의 묵상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인격은 얼마큼 드러나 있는가?

-나의 선택십계명을 작성합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정리합니다.

①절대가치관

②최고가치관

③핵심가치관

2. 영성의 기초는 주님닮음이다.

영성의 깊이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 영성이 깊은 만큼 주님닮음이 자리하여야 한다.

1) 성경본문 : 고전3:10-11

2) 잠시 생각하는 곳

-나의 생각, 언어생활, 행동 속에서 주님 닮음은 얼마나 될까?

-건축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이다.

87) 최용범, *영성훈련과 교회성장* (서울: 보이스사, 1996), 58.

- 영성의 기초는 예수님의 인격이시다.
-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각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이다.
-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한다.

3) 내 마음의 묵상

-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닮음의 흔적은 어떠한가?
- 인격의 열매를 기록해보자
- 영성의 깊이란 무엇인가?

3. 영성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다.

강한 힘은 내면으로부터 나온다. 영성은 외유내강으로 나타난다.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며 정돈된 내적질서를 갖는다.

1) 성경본문 : 엡3:16

2) 잠시 생각하는 곳

-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
-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 능력은 실제 우리 속(=내면)에서 시작된다.
- 내면의 변화를 말한다.
-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이다.
- 영혼은 영혼의 양식을 섭취함으로 강건해진다.
-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갖는 것이다.
- 내면의 세계를 가꾸는 것이다.

3) 내 마음의 묵상

- 내 속사람은 무엇으로 강하게 하는가?
- 나의 관심은 과연 무엇인가?(속사람/겉사람)
-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 까지"(갈4:19)의 의미를 묵상하고 나누어 보자

4.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내면의 질서가 세워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뿌리깊은 나무가 폭풍우 중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1) 성경본문 : 잠 20:5

2) 잠시 생각하는 곳

-나는 얼마나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나의 영성이 흔들렸는가?

-흔들림이 없는 영성을 가진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징표는 무엇일까?

-뿌리깊은 영성은 깊어야 한다.

-깊은 곳에서 나는 샘물은 바깥 날씨나 기후나 환경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뿌리깊은 영성은 요동치 않는다.

-뿌리깊은 영성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더욱 견고해진다.

-뿌리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3) 내 마음의 묵상

-나는 어린신앙인가? 성숙한 신앙인가?

-왜 나는 흔들리는가?

-흔들림이 없는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징표는 무엇인가?

▣영성의 성숙

영성은 자란다. 영성의 성숙은 보다 더 깊은 세계로 안내하며, 감추어진 세계 속으로 이끌고 우리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꾸는 것이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이 곳 우리의 내면세계이다.

1. 깊이 있는 영성

그 내면세계의 성숙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깊이 있는 영성은 도전받고, 변화되며, 성숙한다. 보다 더 주님과 친밀함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여 진다.

1) 성경본문 : 잠20:27

2) 잠시 생각하는 곳

- 깊은 영적세계란 무엇인가?
- 어떻게 영적인 깊이를 가질 수 있을까?
-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다. -넉넉함
- 내면 깊은 곳=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다.-자람
- 어떻게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것인가?
- ① 훈련을 통하여
- ② 말씀을 통하여(히4:12)
- ③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고전2;10-11)

3) 내 마음의 묵상

- 나의 영적 성숙은 어떠한가?
- 오늘 말씀의 묵상은 내 영혼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 영적 성숙을 위한 자신의 헌신은 무엇인가?

2. 생각의 영성

사람의 영성은 그의 생각으로부터 출발된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기에 그의 생각이 얼마나 은혜중심인가? 라는 질문으로 자신의 영성을 가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의 영성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식의 훈련이 필요하다. 앎이 생각을 만든다. 아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앎을 통하여 자기를 발견하고 발견된 것을 생각함으로 점점 자라게 된다.

1) 성경본문 : 벧후3:18

2) 잠시 생각하는 곳

-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이었나?
-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기본이요, 삶이며, 생활의 원동력이다.
-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고전15:10)

-은혜

- ①선물이다.
- ②매력이다.
- ③그리스도인의 힘이다.
- ④은혜로운 자의 결과는 감사이다.

3) 내 마음의 묵상

눈을 감고, 지난날들의 삶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상해 보자!

3. 어린 신앙의 특징

성숙한 영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린신앙을 벗어나야 한다.

우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다음으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1) 성경본문 : 엡4:14

2) 잠시 생각하는 곳

-나의 신앙 성숙도는 어느 정도인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청년의 신앙/장성한 자의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사람의 꾀술에 잘 빠진다.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고전13:11, 약1:6-8)

-어린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 「분별력」에 따라 성숙도가 결정되어 진다.

3) 내 마음의 묵상

-내 삶에 나타나는 신앙의 성숙도는 어떠한가?

-장성한 영성의 특징은 무엇일까?

-분별력을 갖기 위한 영적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4. 영성은 영적지식으로 성숙한다.

지식에는 일시적이며 한계가 있는 인간변화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수평

적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인간으로의 회복을 위한 자극과 도전을 주는, 그래서 보다 더 인간다운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영적지식인 수평적 지식이 있다.

1) 성경본문 : 엡4:13

2) 잠시 생각하는 곳

- 수직적 지식을 향한 나의 삶은 어떠한가?
- 성경말씀을 위한 자신의 드림은 어떠한가?
- 말씀을 아는 것, 영적 성장과 직결된다.
-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호6:6)
- 세상의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 우리의 성장은 주님을 알아 가는데 있다.(벧후3:18)
- 영적성장을 원하는 자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한다.(호6:3, 골3:16, 엡5:18)

3) 내 마음의 묵상

- 수직적 지식을 위한 자신의 결단은 무엇인가?
- 자신의 지식경영은 어떻게 하는가?
- 하나님을 알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 우리는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5. 성숙은 깨달음이다.

1) 성경본문 : 시49:20

2) 잠시 생각하는 곳

- 사50:4 묵상하기
- 자신의 가치관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 영성의 깊이는 깨달음의 깊이이다.
- 말씀을 듣고→알고→깨달아야 한다.
- 깨달음을 위하여
- 영적지도자를 만남/행8:31
- H.S도움으로/요14:26, 요일2:27
- 기도를 통하여/단10:12

3) 내 마음의 묵상

-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가치관은 무엇인가?

6. 영성의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어린 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는 지각을 사용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각을 갖기 위한 자기 헌신이 필요하다. 자기헌신은 자기관리로 나타난다.

1) 성경본문 : 히5:14

2) 잠시 생각하는 곳

-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 한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
- 생각의 깊이로 성숙의 정도를 가능하다.
- 하나님의 일꾼은 분별력(딤후2:15)을 지녀야 한다.
- 지각을 사용한다. →생각을 깊이 한다는 것
- 생각에 훈련이 필요하다.

①독서

②멘토링

③묵상

④학습

- 육체를 훈련하려면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 수영을 배울때면 쉽게 알 수 있다. 고된 훈련의 과정이 지나면 물 속에서 자유로와질 수 있는 것처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3) 내 마음의 묵상

- 최근에 읽은 도서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풍요로움을 얻은 것은 무엇인가?
- 생각의 훈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자신의 영적 멘토와의 만남은 어떠한가?
-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필요가 있다.

- 성장을 위해서는 은혜와 훈련의 두 기둥에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 바울은 이 두가지를 동시에 이루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 진정한 변화는 우리 내면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겉모양의 변화나 일시적인 행동의 변화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 그 분은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신다.
- 우리로 하여금 변화에 대한 열망과 마음을 갖게 하신다.
- 자각하게 하고, 그 변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
- 변화 되도록 독려하신다.

▣영성과 훈련

1. 광야학교의 훈련

광야학교에서 우리는 삶의 초점을 훈련받는다.

- 1) 성경본문 : 렘 2:6
- 2) 잠시 생각하는 곳
 - 인생의 광야 시기는 언제였는가?
 - 나는 광야를 피하고자 하는가?
 -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진다.
 - 광야에서 자아를 꺾으신다.
 -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님으로 길들이신다.
 - 광야학교의 훈련은 고난의 훈련 과정이다.
 - 광야는 부서짐, 깨어짐, 실패, 좌절, 자아상실의 위기가 있는 곳이다.
 - 축복의 통로이다./신8:16
 - 이곳에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경험한다.
 - 광야는 하나님 사람들이
 -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필수과정이다.
 - 광야 없이는 가나안을 갈 수 없다.

3) 내 마음의 묵상

- 광야의 고통은 무엇인가?
- 나의 광야학교에서 체험된 깨달음은 무엇인가?
- 광야학교에서 배운 초점의 변화는 무엇인가?

2. 기다림의 훈련

1) 성경본문 : 시62:1-2

2) 잠시 생각하는 곳

- 나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 행하다 실패한 적이 없는가?
- 조급함 때문에 실패한다.
- 귀히 쓰시는 사람일수록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다.
- “그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욱 중요하다.
-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사람의 인격, 성품을 다듬으신다.
- 기다림의 시간은 연단과 수련과 준비를 시키시는 시간이다.
-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3) 내 마음의 묵상

- 지금 내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훈련

3.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훈련

1) 성경본문 : 대상 12:32

2) 잠시 생각하는 곳

- 나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가?
- 내 생각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다.
-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서 행할 때 그 결과는 비참하다.
- 분별하지 못하면 성급해진다.
- 인내를 요한다. →온유하게 된다.
-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다.
- 우리는 하나님 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3) 내 마음의 묵상

-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
-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4. 홀로 있는 훈련

1) 성경본문 : 마4:1-2

2) 잠시 생각하는 곳

-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있는가?
- 광야 학교는 외로움의 학교이다.
- 깊이 있는 영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홀로 있어야 한다.
- 필수 과목이다.
- 외로움을 통해 성장해간다.
-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
- 외로운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

3) 내 마음의 묵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5.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1) 성경본문 : 신32:10

2) 잠시 생각하는 곳

-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 조용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이다.
-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음을 따라 듣는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 ‘광야’와 ‘말씀’이라는 말의 히브리 어원이 같다.
- 하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말씀하신다.
- 듣는 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말씀하신다.

-듣는 귀를 계발해야 한다.

-우리들의 귀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열린다.

-광야→고통→축복이 됨은 고통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내 마음의 묵상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자주 귀를 기울이는가?

6. 기도와 말씀 훈련

1) 성경본문 : 출8:28

2) 잠시 생각하는 곳

-오늘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오늘 내 영혼을 위해 영의 양식은 얼마나 섭취하셨나요?

-영성훈련의 두 기둥은

-광야에서 2가지 훈련을 받는다.

-영적 능력의 원천은 「기도」와 「말씀」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말씀)을 듣는다.

-기도는 시간낭비가 아니라 가장 귀중한 일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움직이신다.

-광야에서 말씀을 받는다.

-하루의 필요한 양식은 이른 아침에 주셨다.



예) 만나: 새벽에 주님 만나는 삶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하늘의 것으로 만족한다.

-하늘의 양식과 하늘과의 교통(기도)이 있어야 한다.

-광야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3) 내 마음의 묵상

이른 아침 나는 무엇을 하는가?

7.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

1) 성경본문 : 사64:8

2) 잠시 생각하는 곳

-나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까지 깨뜨리신다.

-연단하시는 것이다. 말3:2-3

-자기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모세/40세 되었을때 자신의 육신을 신뢰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아가 약할 때 임하신다.

-은혜의 창구는 나의 자아가 약할 때 임하신다.

※그리스도인이 져야 하는 3가지 십자가

①자아의 십자가 갈2:20

②정욕의 십자가 갈5:24

③세상의 십자가 갈6:14

3) 내 마음의 목상

-내 힘으로 살아온 날들을 목상하라!

-깨어지지 않은 나의 자아는?

8.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또 훈련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라는 존재이유를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1) 성경본문 : 빌2:7-8

2) 잠시 생각하는 곳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무시가 아니다.

-자기비하도 아니다.

-자기 정체성의 상실도 아니다.

-자기멸시도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라.

3) 내 마음의 묵상

-자신의 개인 사명문을 기술하라.

-자아 정체성이 회복됨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인가?

9. 작은 일을 귀히 여기는 훈련

1) 성경본문 : 마25:23

2) 잠시 생각하는 곳

작은 일을 소홀히 한 것들은 없는가?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배워야 한다.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목자가 되어야 한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윗의 목동시절 모습을 보고 선택하셨다.

-작은 일을 귀히 여기는 큰 자가 되어야 한다.

3) 내 마음의 묵상

-내가 소홀히 한 작은 일은 없는가?

-성실의 의미는?

10. 섬기는 훈련

1) 성경본문 : 약10:45

2) 잠시 생각하는 곳

나는 누구를 섬긴 적이 있는가?

-낮은 위치로 내려오는 것이다.

- 섬기고 기도하기 위해 꿇은 무릎
-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 회개하는 젖은 눈
-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깨어진 심장
- 인간은 섬기기 보다는 섬김 받기를 좋아한다.
- 진정한 섬김은 무엇인가?
- 영적인 힘이 필요한 자 →기도
- 물질이 필요한 자 →물질
- 사실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막10:43-44
-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 나는 죽어야 한다.

3) 내 마음의 묵상

- 섬기지 못하고 있는 이웃은 없는가?
- 이웃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11. 침묵 훈련

- 1) 성경본문 : 막15:5
- 2) 잠시 생각하는 곳

침묵의 깊이를 체험해 보았느냐?

- 영성이 깊어질 때는 침묵할 때이다.
- 깊이 뿌리내리는 나무는 소리가 없다.
- 침묵은 영혼의 찌꺼기를 버리는 시간이다.
- 침묵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된다.
- 영적 성장의 장애물-영적소음-내적소음→육신의 생각
- 육신의 생각→롬8:5-6
- 침묵은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변화시킨다. →회개
- 말씀을 마음에 품고 침묵-묵상
- 말씀을 침묵속에서 조용히 기도로 적시는 시간→이때 깨달음이 온다.

3) 내 마음의 묵상

오늘 하루 침묵하면서 기도로 적시는 시간을 가져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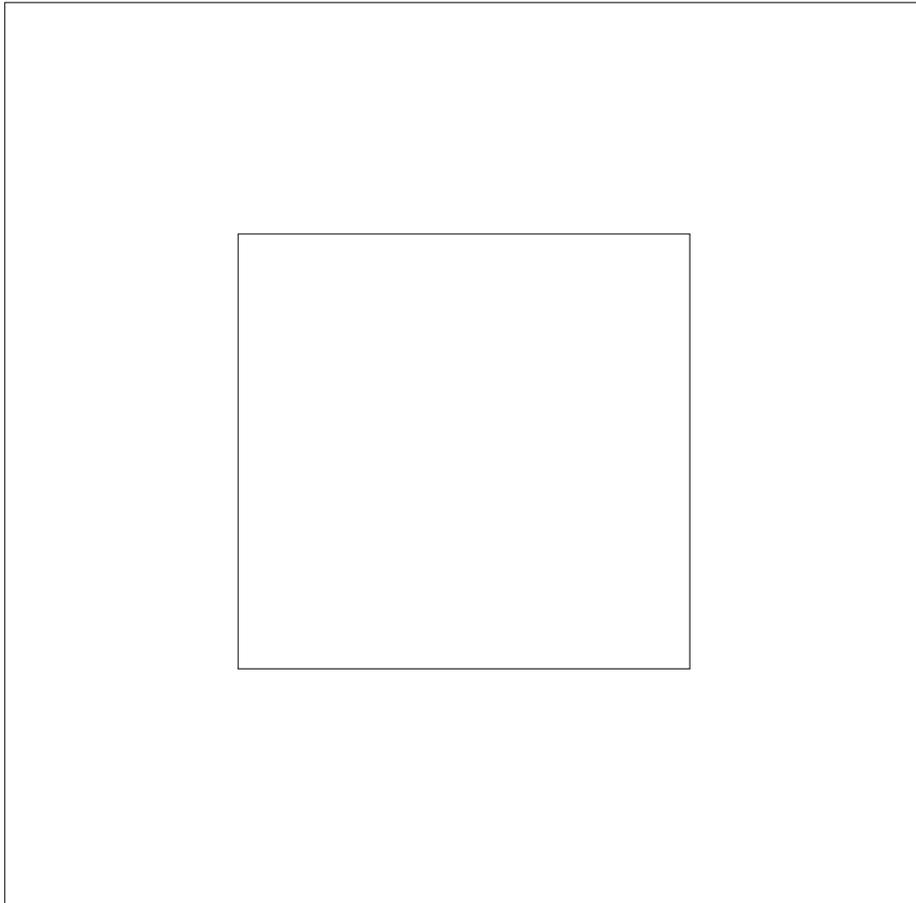
부록3

도형상답지 ○□△ S 를 통한 자아 발견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직업(학교)	
주소				전화번호		작성일	
E-Mail	혈액형/					종교	

■그리는 요령■

1. ○□△ S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1가지 골라 아래 그림에 크기나 위치에 구애 없이 3번 그립니다.
2. 나머지 도형 3가지는 1번씩 자유롭게 그립니다.



▣아 래▣

(2) 1차 기질도형의 기본 특징⁸⁸⁾

♣ ○다혈질

우리나라에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편성과 대중성을 의미하며, 감성적이기에 감정적 이해를 잘한다.

▣장점

1. 이야기를 잘 한다.
2. 대체로 외향적 성격이기에 성격이 좋다.
3. 원수가 없다.
4. 다정다감하다.
5. 상대를 배려한다.
6. 상대의 필요를 먼저 안다.
7. 열정적, 감정적 흥분을 잘한다.
8. 수용능력이 뛰어나다.

▣극복해야 할 사항

1. 의지가 약하다.
2.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3. 전문성이 부족하다.
4. 귀가 얇다.
5. 신용을 잃기 쉽다.

♣ △담즙질

부모님 중 한 분이 생활력이 매우 강하다. 젊은이들한테 많이 나오고, 일반인도 10퍼센트정도 나오며, 최근에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기 싫어하는 유형이며 현실적인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 능력이 높으며 경쟁을 즐긴다.

▣장점

⁸⁸⁾ Tim Lahaye, *성령과 기질* 홍종락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30-52.

1. 의지가 강하다.
2. 새로운 일을 잘 할 수 있고, 마음에 동요가 없다.
3. 자립심이 아주 강하다.
4.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다.
5. 생산적 생각을 잘한다.
6. 단호한 결정을 잘한다.
7. 지도력이 탁월하다.
8. 늘 자신감이 넘쳐있다.

■ 극복해야 할 사항

1. 화를 잘 낸다.
2. 잔인할 때가 있다.
3. 냉소적이다.
4. 충고를 받지 않는다.
5. 생각이 많을 수 있다.
6. 거만해 보인다.
7. 보상심리가 강하다.
8. 의리가 있다.

♣ □ 점액질

부모님이 훌륭한 분에게서 많이 나온다. 전체 도형 중 제일 적게 나온다.

■ 장점

1. 조용한 성품이다.
2. 서두르지 않는다.
3. 준비성이 철저하다.
4. 신뢰성이 높다.
5. 안정적이다.
6. 일을 조리 있게 한다.
7. 현실적 직관 능력이 있다.

8. 지도 능력이 탁월하다.

9. 침착성이 있다.

▣극복해야 할 사항

1. 지적을 잘한다.

2. 사람을 잘 믿지 않는다.

3.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4. 추진력이 떨어진다.

5. 공격을 많이 당하면 자존감을 잃는다.

6. 창조성이 약하다.

7. 이기적이다.

8. 진실하다.

9. 고집이 강하다.

♣ S 우울질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없는 경우가 많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반발심이 강하다.

▣장점

1. 재능이 뛰어나다.

2. 논리적이다.

3. 상대방을 감동 시키는 능력이 있다.

4.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다.

5. 순수하다.

6. 이상주의적이다.

7. 아이디어가 많다.

8. 충성심이 특별나다.

9. 집중하면 천재성을 발휘한다.

▣극복해야 할 사항

1. 이기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마음의 한이 깊이 내린다.
4. 비현실적이다.
5. 비사교적이다.
6. 나는 왜 그럴까 고민이 많다.
7. 자기 방어가 강하다.

부록4

제자훈련을 위한 안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자훈련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을 만족스럽게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자훈련을 인도하시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위해 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뢰하고 잘 따르시면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2. 결석을 하거나 중도 하차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한 두 번 고비가 있을 때 서로 기도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 교재 예습을 해야 합니다. 예습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연필로 메모해 오시기 바랍니다.

4. 과제물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리면 부담으로 남습니다.

5. 전 인격적인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머리만 움직이는 사람은 차가운 이론가는 될지 모르나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모두 집중되는 훈련이라야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사항

1. 주의사항

- 1) 결석 3회이상자는 미수료로 처리됨/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결석시는 탈락됨
- 2) 지각 3회는 결석 1회 해당
- 3) 훈련시 병사 금물
- 4) 훈련생간 금전 거래 절대 금지

2. 훈련시 예상되는 시험

- 1) 숙제의 부담감: 안했을때 가기 싫은 마음, 매일 나누어서 할 것
- 2) 가정적 시험: 친구, 가족, 이웃들
- 3) 훈련생끼리의 인간관계의 갈등
- 4) 자기 자신과의 싸움(건강 악화나 꼭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 5) 학교, 직업상으로 바빠짐

3. 훈련시 반드시 지참

- 1) 교재와 바인더
- 2) 암송카드(60절)
- 3) 성경, 찬송, 필기구

4. 모임안내

- 1) 장소: 청년부실
- 2) 시간: 모임시작 5분 전 까지 입실하여 수업준비 끝.
- 3) 대상: 각 셀장들.
- 4) 훈련시간: 1시간 30분(매회)

5. L.D.T 제자 훈련생 수칙

♣ 훈련 중 구호: “(훈련 중)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모임]

- 1) 모임 하루 전에는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 2) 제자반 모임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꼭 기도로 준비한다.
- 3) 무단결석 2회면 미수료 된다.
- 4) 1분만 지각해도 5,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 5) 결석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0,000원 벌금이다.

[관계 및 경조사]

- 1) 제자반에서 생일카드에 축하인사를 적고 생일 축하를 한다.

- 2) 제자훈련의 모든 경조사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제자반에서 나누었던 내용은 누구에게도 절대 비밀이다.
- 4) 일주일에 2명씩 돌아가면서 전화통화로 격려하고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준다.
- 5) 신앙경력이나 나이나 선,후배 문제로 위치를 정하는 것은 금물이며, 경어를 사용한다.
- 6)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제자반을 그만 두어야 한다.

[학습]

- 1) 이해를 위한 질문: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답변한다.
- 2) 적용을 위한 질문: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답변한다.
- 3) 결단을 위한 질문: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답변한다.
- 4) 다른 사람과 의견이 틀리더라도 자신의 견해만 밝히면 된다.

[과제]

- 1) 교제예습: 연필로 기록하고 훈련시는 볼펜 사용.
- 2) 성경읽기: 매일 지정된 신,구약을 읽는다.
- 3) 매일 Q.T를 한다(될 수 있는 대로 성경으로만).
- 4) 기도: 매일 20분 이상 한다.
- 5) 암송: 교제 뒷 부분에 정해진 성경구절을 암송한다.

[훈련 중 을 수 있는 영적 전쟁]

- 1) 과제물에 대한 부담감: 매일 매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 2) 떨쩍하던 가족, 친척, 교회, 학교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3) 자신과의 내적 갈등(건강, 성격, 경쟁의식, 미움, 공동체 문제 등)
- 4) 교역자가 미워질 수도 있다. - 이야기 하지 말고 기도하라.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고용수. *21세기 한국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장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5.
- 고직한. *청년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서울: 흥성사, 2003.
- 김덕주. *멘토링 제자훈련*. 서울: 아리울, 2006.
- 김상권. *청년실종 공동체성으로 공략하라*. 부천: 크리스천리더, 2012.
- 김두식. *전도는 어명이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김선일. *문화와 전도*.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 김성진.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길*. 서울: 목회 컨설팅 연구소, 2009.
- _____. *리더십의 12가지 기본원리*. 서울: 목회컨설팅 연구소, 2007.
- _____. *건강한 교회 project 30*.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_____. *영성훈련학교 교재*. 서울: 목회전략컨설팅 연구소, 2005.
- 김세윤. *신약 성경신학 1*.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 _____.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9.
- _____.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서원, 2012.
- _____.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1.
-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 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07.
- 김원기.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라”. *목회와 신학*, 1998, 4월호
-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 김형태. *신앙·교육·가정*. 한남대학교 출판부 글누리, 2009,
- 박용진. *청년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박희경. *현대 청년 심리학*. 서울: 학문사, 2000.
- 송창근. *셀경험 과정*. 서울: 큰숲출판사, 2005.
- 육한흠.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09.
- 육한흠 외 5인. *청년이여 일어나라*. 서울: 규장, 1998.

- 이재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서울: 흥성사, 2009.
- 진병욱. *부흥.com*. 서울: 규장, 1999.
- 정옥분.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학지사, 2011.
- 최용범. *영성훈련과 교회성장*. 서울: 보이스사, 1996
- 황승룡. *예배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3.

2. 번역 서적

- Blackaby, Henry T. & Richard Blackaby. *영적 리더십*. 윤종석 옮김. 서울: 두란노 서원, 2002.
- Bounds, E. M. *기도의 능력*. 유준목 옮김.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2011.
- Comiskey, Joel.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5.
- Frazee, Randy. *21세기 교회 연구 공동체*. 차성구 옮김. 서울: 좋은씨앗, 2003.
- Hendricks, Howard & William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 정현 옮김. 서울: 디모데, 2006.
- Jimjon, Wolfgang. *가정교회*.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04.
- Khong, Lawrence. *신사도적 셀교회*. 최봉실 옮김. 서울: 한국강해설교 학교 출판부, 2004.
- Lahaye, Tim. *성령과 기질*. 홍종락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 Lloyd-Jones, D. Martyn.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 서문강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Long, Jimmy. *새로운 청년사역이 온다*. 신현기 옮김. 서울: IVP,, 2009.
- Neibour, Ralph W. *셀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밴드목회 연구원, 1999.
- Rima, Samuel D, *셀프 리더십*.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 Stanley, Andy.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이종순역. 서울: 디모데, 2006.
- Sweet, Leonard,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옮김. 서울: 좋은 씨앗, 2002.
- Webber, Robert E. *살아있는 예배*. 황인걸 옮김 경북: 예본출판사, 2006.

3. 외국서적

Hoge, Dean R. and David A. Rooze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 Decline: 1950-1978*. New York: The Pilgrim. 1979

Vita of
Jaekil Yu

Present Position:

Assisting Pastor of Choonyang Presbyterian Church, Bonghwa.

Personal Data:

Birthdate: October,15th,1968
 Marital Status: Married , with two children,
 Home Address: 364-4 Euyang-ri, Choonyang-Myen
 Bongwha-gun, Kyeongbuk. Korea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March, 2009

Education:

B. E.: HanBat University, Daejeon, 1995
 M. Div.: Daejeon Theological Seminary, Daejeon,
 2007
 M. A. C .E.: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9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3

Personal Experience:

11/2010 to present: Assisting Pastor
 of Choonyang Presbyterian Church, Bonghwa